



2019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영어능력지수 순위

EF SET

EF 표준 영어 시험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응시하세요.

www.efset.org

www.ef.com/epi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1. 시험 응시자 230만 명, 전년 대비 77% 증가
2. 새로 추가된 8개국: 바레인, 코트디부아르, 케냐,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네팔, 파라과이, 수단
3. 여성의 영어 실력을 따라잡고 있는 남성
4. 영어 능력과 국제 교류, 글로벌 연결 간의 상관관계 심층 분석
5. 학생용 EF 영어능력지수(EF EPI-s) 보고서에서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차

- 04 개요
- 06 EF EPI 2019 순위
- 08 EF EPI 2019 도시별 점수
- 10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 12 영어와 혁신
- 14 영어와 업무
- 16 영어와 경제
- 18 영어와 사회
- 20 유럽
- 24 아시아
- 28 라틴 아메리카
- 32 아프리카
- 36 중동
- 40 결론
- 42 권장사항
- 44 부록 A: 지수 정보
- 46 부록 B: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 47 부록 C: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48 부록 D: EF EPI 국가 및 지역별 점수
- 50 부록 E: 인용 자료

개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영어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더 유용한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 혹은 제2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제3 혹은 제4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하여, 청년들과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해외 여행자들에게 영어 능력은 시야를 넓히고 장벽을 낮추고 정보 교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영어 학습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유창한 영어 능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반향으로 수립된 교육 제도를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을 우선시하는 문화로 인해 성인들은 새 기술을 익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킥(gig)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쇠퇴하는 기회를 버리고 새로 떠오르는 기회를 재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영어 능력 자체가 경쟁력을 위한 요소이지만, 당사 분석에 의하면 영어 능력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연결'에 대한 중요성 또한 동일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각 개인이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질적으로 연결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호기심, 만남,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책임감을 공유하는 의식 등과 함께 글로벌 시대를 특징 짓는 요소 중 하나이며, 오늘날 영어 구사 능력은 이러한 연결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영어 능력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EF 영어능력지수 리포트 제9판에는 2018년에 당사의 영어 시험에 응시한 성인 2천 3백만 명의 시험 결과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상하고 있는 영어 능력

전 세계의 인구 가중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11개국의 점수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점 이상 상승). 반면 4개국은 눈에 띄게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이 우수 등급에 속하는 국가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어와 혁신의 밀접한 관련

영어는 국제 협업을 위한 주언어이며,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투자 방안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관리자를 갖춘 회사들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쟁사보다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좀 더 국제적으로 협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능력이 높은 국가는 더 공정하고 더 개방적이다

국제 세계를 향한 사회의 연결성과 국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정치적 평등 간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회는 시선이 내부로 향해 있고 엄격한 계급 서열을 형성합니다. 개방적인 사회는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고,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성격을 띠니다. 국제적인 연결 수단으로서 영어는 평등 및 외부 세계와의 교류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한 영어의 확산

기술 지원 기반의 원격 교육으로 언젠가는 누구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어디에서든 영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을 아직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당 안전한 서버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광대역 가입자 수 등과 같은 기술 적용의 척도와 영어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어 미디어에 대한 접근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학습 진도 또한 빨라진 것입니다.

가장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20대 성인

26~30세 성인의 영어 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대학 교육에서 영어 강습의 저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 영어 연습과 일부 공식 교육을 통해 성인이 직업 경력 초기에 영어 능력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21~25세 성인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리자 직급

전 세계적으로 관리자 및 임원급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영어 능력 점수가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는 일반 직원보다 더 정기적으로 해외의 동료 및 고객사와 소통하므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어 능력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갖춘 사람이 관리자로 승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은 좀 더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고, 이들 대다수는 영어 능력의 가치가 다소 낮게 평가될 때 비즈니스 환경에 뛰어난 연령대입니다. 모든 상급자 레벨에 높은 영어 능력이 확대된다면 회사가 조직 간에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더 다양한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적인 업계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영어

올해 보고서의 조사 대상 산업은 교육 및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 능력 점수가 10점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다소 떨어지는 부문의 영어 능력이 다른 업계에 비해 훨씬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우선 순위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양한 언어 환경을 가진 국가의 외교관과 교사, 공무원, 그리고 글로벌한 선례를 접하고 해외 동료에게서 배우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하고자 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특정 직무의 비영어 구사자군

평균 영어 능력이 높은 직군과 언어 기술이 뒤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직군 간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결과는 꽤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 및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수에서 단일 국가로 계산한다면 올해 100위 중 94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업에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 내지 50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만 종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어 능력은 적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구분,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 구분이 더 커지기만 할 것이며, 그 결과 회사의 유연성과 개인의 이동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줄어드는 성별 격차

지난해 전 세계 및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영어 실력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점이 안 되는 근소한 점수 차로 앞섰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미한 차이였지만 처음으로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동에서는 지난해 남성이 약간 우세했지만, 올해는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유럽인들의 영어 능력 양극화

유럽 연합에서는 우수 등급에 속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영어 능력 수준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점수는 지난 2년 동안 향상하였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나머지 EU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회원국들과 같은 속도로 영어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EU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점수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아시아

아시아의 영어 능력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점수 등급이 누락된 국가가 절반 이상인 하지만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는 영어 능력 수준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그 크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처음 미흡 등급에서 시작하여 지난 10년에 걸쳐 꾸준히

발전하여 보통 등급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판도 변화를 보이는 라틴 아메리카

올해 라틴 아메리카의 조사 대상이었던 18개국 중 12개국은 2017~2018년 사이에 영어 능력이 향상했으며, 이들 중 많은 국가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가장 지역 평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2개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이 다소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교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아프리카

지난 몇 년에 걸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머지 국가들의 저조한 성적에 비해 꽤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점수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간 차이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아프리카의 전체 평균은 상당히 하락했으며, 주원인은 인구가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티오피아의 점수 변화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지수 안에 들지 않았던 수단과 카메룬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 두 국가는 부족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훨씬 뒤쳐지고 있는 중동

중동의 영어 능력은 전 세계에서 큰 차이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균이 전년에 비해 약간 하락했습니다. 중동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결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EF EPI 2019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우수

01	네덜란드	70.27
02	스웨덴	68.74
03	노르웨이	67.93
04	덴마크	67.87
05	싱가포르	66.82
06	남아프리카 공화국	65.38
07	핀란드	65.34
08	오스트리아	64.11
09	룩셈부르크	64.03
10	독일	63.77
11	폴란드	63.76
12	포르투갈	63.14
13	벨기에	63.09
14	크로아티아	6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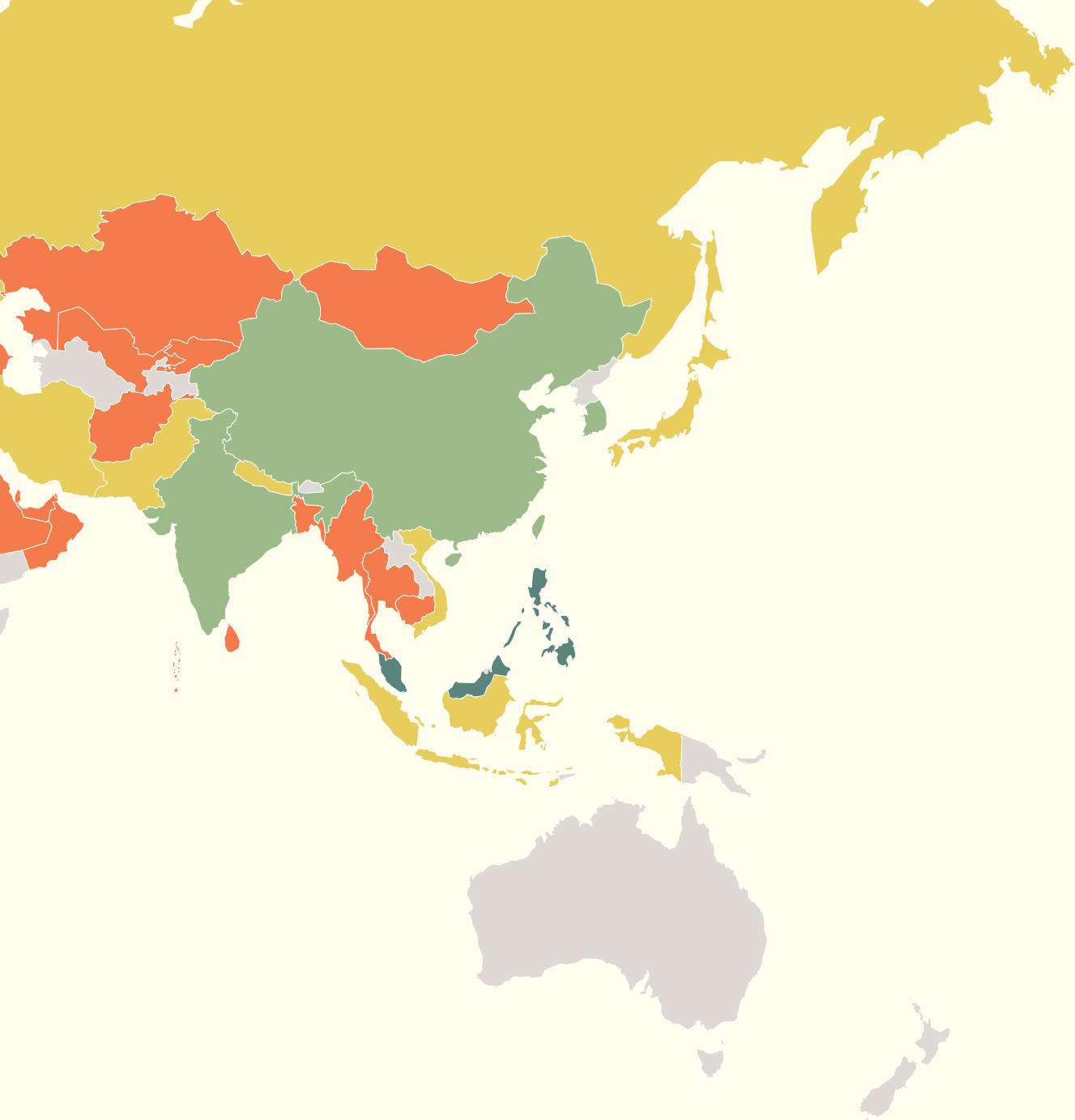
양호

15	헝가리	61.86
16	루마니아	61.36
17	세르비아	61.30
18	케냐	60.51
19	스위스	60.23
20	필리핀	60.14
21	리투아니아	60.11
22	그리스	59.87
23	체코 공화국	59.30
24	불가리아	58.97
25	슬로바키아	58.82
26	말레이시아	58.55
27	아르헨티나	58.38
28	에스토니아	58.29
29	나이지리아	58.26

보통

30	코스타리카	57.38
31	프랑스	57.25
32	라트비아	56.85
33	홍콩, 중국	55.63
34	인도	55.49
35	스페인	55.46
36	이탈리아	55.31
37	대한민국	55.04
38	대만, 중국	54.18

39	우루과이	54.08
40	중국	53.44
41	마카오, 중국	53.34
42	칠레	52.89
43	쿠바	52.70
44	도미니카 공화국	52.58
45	파라과이	52.51
46	과테말라	52.50



미흡

47 벨라루스	52.39
48 러시아	52.14
49 우크라이나	52.13
50 알바니아	51.99
51 볼리비아	51.64
52 베트남	51.57
53 일본	51.51
54 파키스탄	51.41
55 바레인	50.92
56 조지아	50.62
57 온두라스	50.53
58 페루	50.22

59 브라질	50.10
60 엘살바도르	50.09
61 인도네시아	50.06
62 니카라과	49.89
63 에티오피아	49.64
64 파나마	49.60
65 튀니지	49.04
66 네팔	49.00
67 멕시코	48.99
68 콜롬비아	48.75
69 이란	48.69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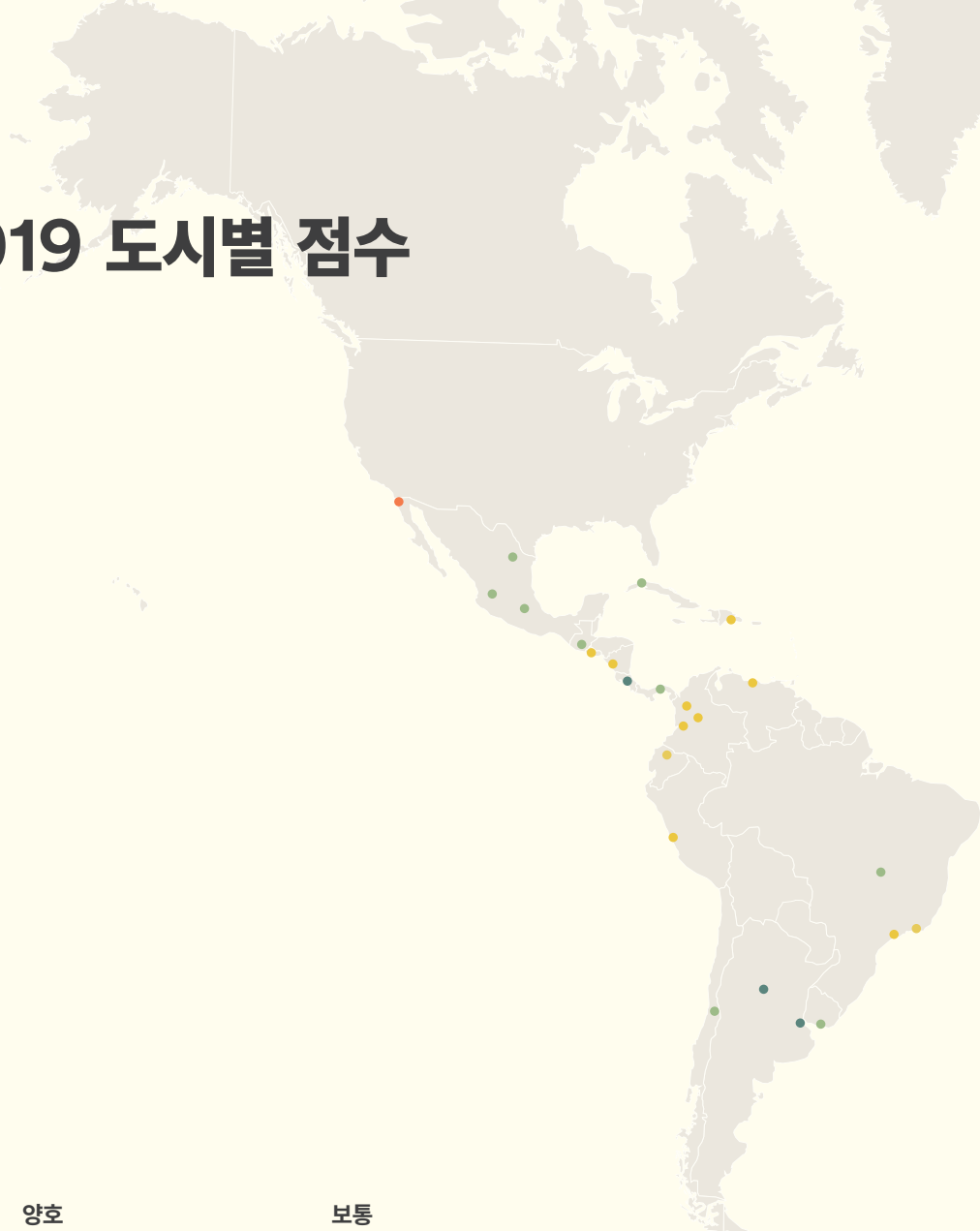
70 아랍 에미리트	48.19
71 방글라데시	48.11
72 몰디브	48.02
73 베네수엘라	47.81
74 태국	47.61
75 요르단	47.21
76 모로코	47.19
77 이집트	47.11
78 스리랑카	47.10
79 터키	46.81
80 카타르	46.79
81 에콰도르	46.57
82 시리아	46.36
83 카메룬	46.28
84 쿠웨이트	46.22
85 아제르바이잔	46.13

86 미얀마	46.00
87 수단	45.94
88 몽골	45.56
89 아프가니스탄	45.36
90 알제리	45.28
91 앙골라	44.54
92 오만	44.39
93 카자흐스탄	43.83
94 캄보디아	43.78
95 우즈베키스탄	43.18
96 코트디부아르	42.41
97 이라크	42.39
98 사우디 아라비아	41.60
99 키르기스스탄	41.51
100 리비아	40.87

EF EPI 2019 도시별 점수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우수

암스테르담	71.35
스톡홀름	69.24
코펜하겐	68.52
헬싱키	66.21
오슬로	65.89
비엔나	65.63
베를린	65.51
뭄바이	65.38
함부르크	64.72
바르샤바	64.68
리스본	64.50
부카레스트	64.45
부다페스트	64.27
자그레브	64.14
다바오	63.85
마닐라	63.69
포르투	63.65
브뤼셀	63.56
쿠알라룸푸르	63.42
뉴델리	62.66

양호

나이로비	61.94
브라티슬라바	61.88
베오그라드	61.42
프라하	61.29
부에노스 아이레스	60.87
파리	60.28
산호세	59.32
소피아	59.29
하이데라바드	58.96
코르도바	58.90
라고스	58.47
라이언	58.22
바르셀로나	57.97

보통

마드리드	57.35
타이페이	57.33
서울	57.14
밀란	57.12
상해	56.64
로마	56.28
하바나	55.75
베이징	55.68
몬테비데오	55.59
상트페테르부르크	54.94
멕시코 시티	54.80
산티아고	54.79
몬테레이	54.20

과달라하라	53.93
모스크바	53.86
하노이	53.68
민스크	53.58
과테말라	53.51
키예프	53.51
호치민 시티	53.07
두바이	52.84
청두	52.69
자카르타	52.58
도쿄	52.58
파나마 시티	52.54
브라질리아	52.50



미흡

광저우	52.42
리우데자네이루	52.39
티라나	52.32
선전	52.32
반둥	52.32
수라바야	52.31
산토도밍고	52.09
리마	51.86
상파울로	51.44
메델린	51.35
트블리시	51.24
테헤란	51.23
키토	51.13
산살바도르	51.01
방콕	50.70
튀니스	50.60
칼리	50.53
마나과	49.97
보고타	49.80
카라카스	49.44
카이로	49.27
양카라	49.15
카사블랑카	49.13
다카	48.67
이스탄불	48.65

부족

하르툼	48.39
알제	48.33
암만	48.32
양곤	47.49
티화나	47.31
누르술탄	46.48
도하	46.38
알마티	45.41
바쿠	45.40
바그다드	45.06
카부	45.02
다마스쿠스	45.02
비슈케크	43.73
제다	42.95
리야드	42.90
타슈켄트	42.52

400개 이상의 지역 및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별과 연령, 산업별 데이터에 따른 영어 능력 점수를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시험 응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2.3M

총 응시자 수



59%

여성



90%

40세 미만



4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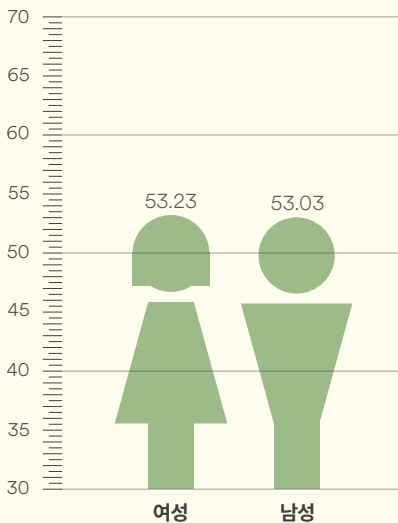
23세

평균 연령

성별과 나이가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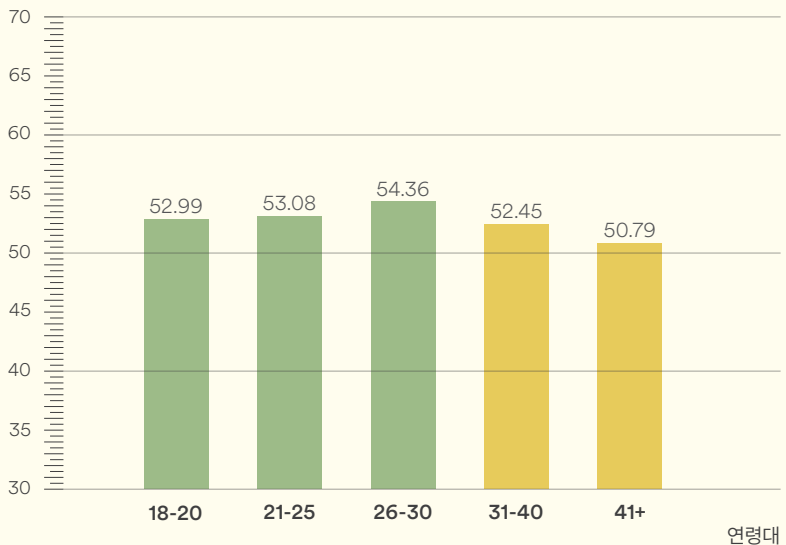
글로벌 성별 차이

EF EPI 점수



글로벌 세대별 차이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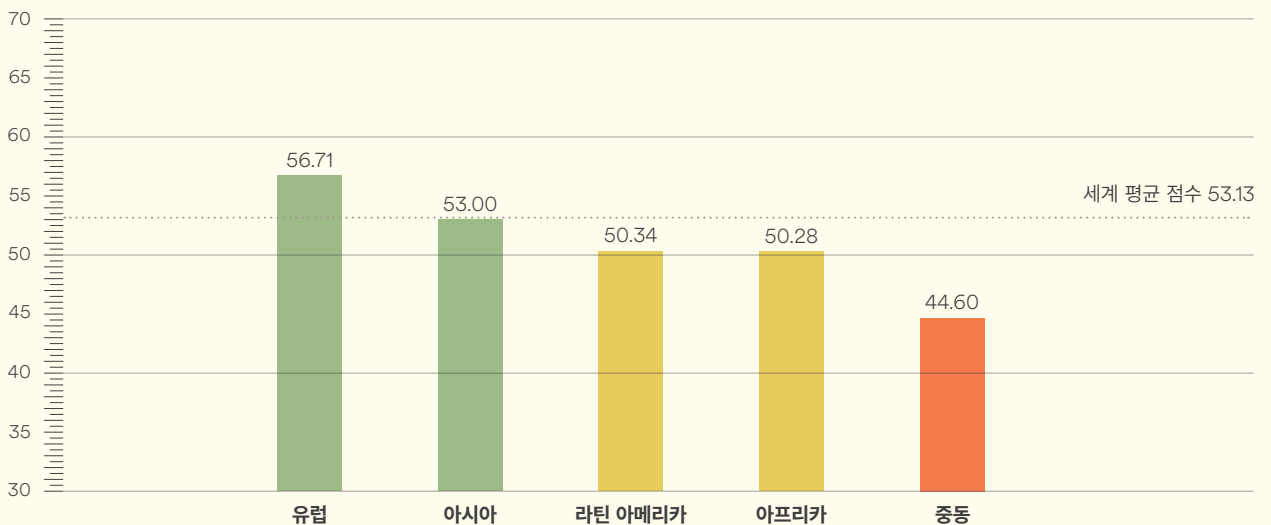
EF EPI 2019 지역별 동향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최고 점수	네덜란드 70.27	싱가포르 66.82	남아프리카 공화국 65.38	아르헨티나 58.38	바레인 50.92
최저 점수	아제르바이잔 46.13	키르기스스탄 41.51	리비아 40.87	에콰도르 46.57	사우디 아라비아 41.60
최대 상승	포르투갈 +3.12	대만, 중국 +2.30	카메룬 +3.83	볼리비아 +2.77	이라크 +1.57
최대 하락	룩셈부르크 -2.30	스리랑카 -2.29	이집트 -1.65	도미니카 공화국 -2.39	사우디 아라비아 -2.05

EF EPI 2019 지역별 점수

EF EPI 지역 평균

EF EPI 점수



영어능력지수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영어와 혁신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21세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영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여행 및 소통의 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통해 이러한 교류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한 혁신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새 아이디어를 접해야 하는 연구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직 및 직장인들은 국제적인 성공 사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영어 능력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감히 엄두도 못 냈을 능력 있는 전문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 및 확보하는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보고서인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그래프 A)와 영어 능력 간의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만남

협업을 위한 도구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무 기반의 소셜 미디어, 그리고 협업 툴을 통해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계의 국제적 컨퍼런스나 회담도 이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료 간에, 경쟁자 간에 네트워크를 맺고 서로의 연구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기록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166개국에서 10,786회의 회의 및 컨벤션이 열렸으며, 2018년에만 3,700회 이상의 TEDx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생태계가 이루어지지만 한다면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 최고의 협업 플랫폼이 있다 해도 직원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및 대화는 거의 영어로 진행됩니다. 교사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영어 사용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최고의 마인드와 아이디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고 보여주고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적 연구는 복잡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 연구를 진행하는 개별 연구소의 시대는 가고 다양한 연구소에서 팀의 자원을 배가시키는 방식이 투자 대상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ature Index의 2017년 기사 중 60%가 국제 협업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유례 없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자본과 인적 자원 모두에서 국가 간 영어 능력과 1인당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 수(도표 B),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비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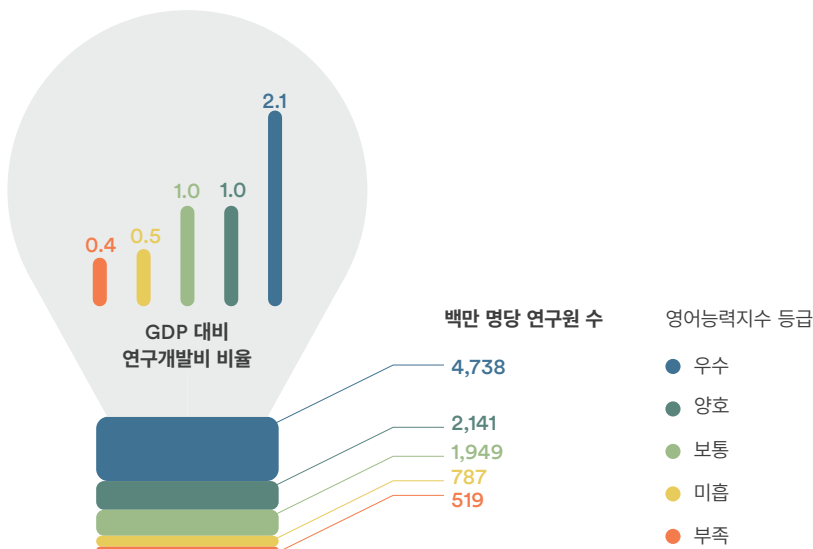
발표한 논문 수를 보면 중국의 과학적 결과물이 미국보다 점점 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국제적 협력이 부족하여 연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 발표한 논문이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보다 인용 선호도가 훨씬 높습니다. 2018년 11월, The Economist는 Nature지에 논문을 발표한 중국 과학자들의 보너스가 165,000 USD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양성은 혁신의 핵심이지만, 연구원들은 이제서야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학문적 연구를 보면 이질적인 그룹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의견보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동질적 그룹보다 의식적 편견이 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은 혁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McKinsey & Company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임원진이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회사가 업계 선두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3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어 능력이 이러한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2018년 톰슨로이터스 IX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지수(Thompson Reuters IX Global Diversity and Inclusion Index)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중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둔 회사는 단 7개뿐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영어 능력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자 1인당 연구원 및 기술자 숫자 등을 비롯한 주요 혁신 척도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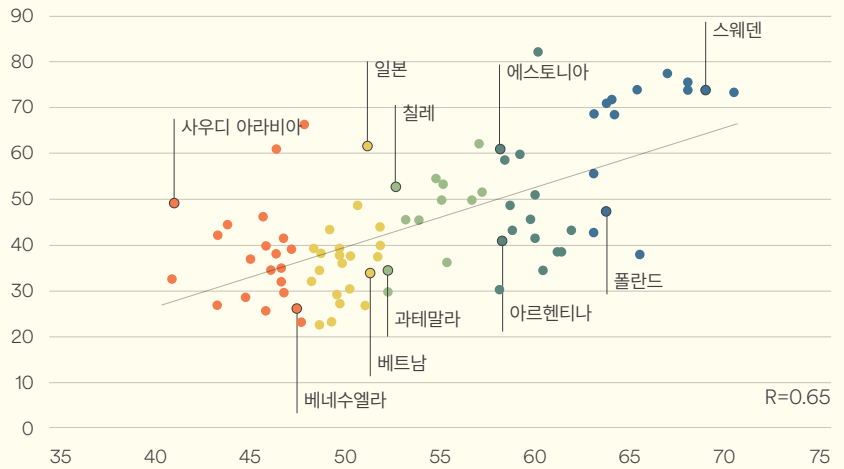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도표 A

영어와 재능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R=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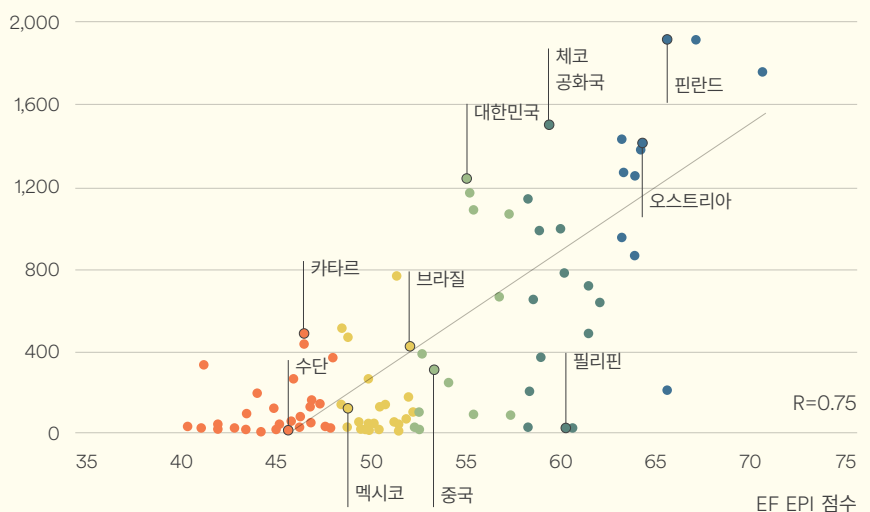
EF EPI 점수

출처: Lanvin & Monteiro, 2019

도표 B

영어와 학문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백만명 당)



R=0.75

EF EPI 점수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6

영어와 업무

현대의 비즈니스 현장은 디지털 기술과 각 경제(gig economy)의 성장, 개인의 소비 패턴에 있어 사회 자본의 가치 증가에 의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정 행위자들을 축출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Edelman Trust Barometer)는 전 세계 사람들의 56%가 '옳은 일을 하는' 기업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를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인해 직원 교육에도 붐이 일고 있습니다. 슬로언 경영 평가 및 딜로이트(Sloan Management Review and Deloitte)의 2018 디지털 비즈니스 글로벌 경영진 연구 프로젝트(Digital Business Global Executive Study)는 전 세계 임원 및 직장인 4,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 중 90%가 최소 연 1회는 본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4%가 일년내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계약직, 프리랜서, 파트타임, 각(gig) 일자리 등 이례적인 근로 시스템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육 모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인재 부문을 관리하고 인력 생태계를 최적화하려면 교육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율 학습은 직원이 관리하는 개별 교육 계정을 통해 사주와 정부 모두로부터 출자를 받고, 외부에서 검증하는 단위 자격 인증(micro-credentials)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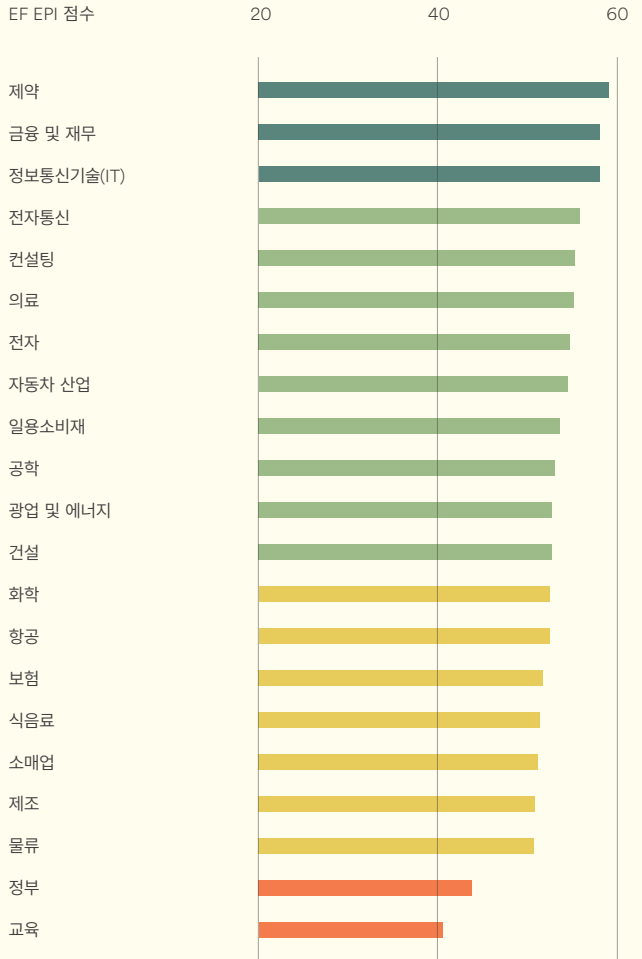
본 데이터로 측정된 현재 종사자의 영어 능력을 특정 업계 또는 직업에서 일하기 위한 영어 수준의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전 세계 평균 대비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낸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만큼 영어를 충분히 마스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 교육 및 개발 담당자는 조직 내 각 부문과 개개인의 영어 능력 조건에 대해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경쟁적인 산업 분야들은 모두 영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순위인 물류업의 점수가 최상위인 제약업의 점수보다 10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의 근로자와 교육자 그룹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보다 훨씬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도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결국 어떤 산업 분야이든 국경에 의해 제한되는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과 외교, 연구, 국제 평화 수호 등 수많은 정부와 교육계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영어 능력이 필수이며, 어떤 역할에 있어서든 영어 구사 능력이 있다면 좀 더 광범위한 아이디어와 사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요구되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직업적 기회도 추구할 수 있어 경제적 혹은 개인적 삶의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계만을 위한 직업은 과거의 산물입니다. 공무원이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근로자 간의 영어 능력 차이는 반드시 풀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산업군별 EF E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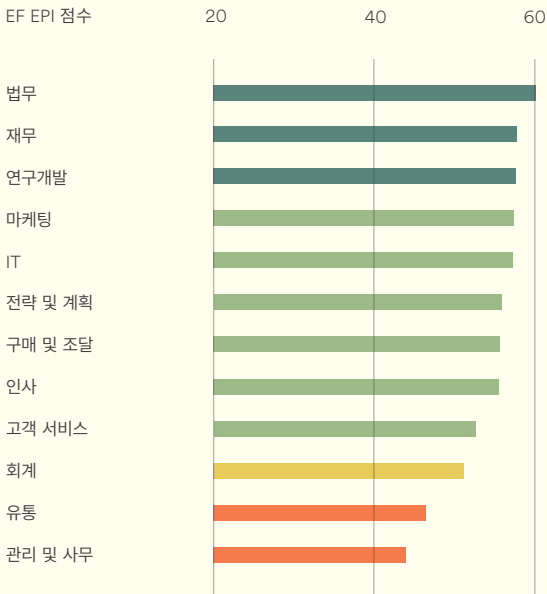
조직에서 이탈

오늘날 기업들은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인 구조와 내부의 전용 네트워킹 툴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협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기업을 더 민첩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조직의 일부는 이와 같은 협업의 대세에 합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무, 유통, 회계, 고객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직무의 동료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은 다국적 팀에서 생산적인 일원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력 전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직업 중 3분의 2가 현재 기술로 자동화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직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줄어들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영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전환은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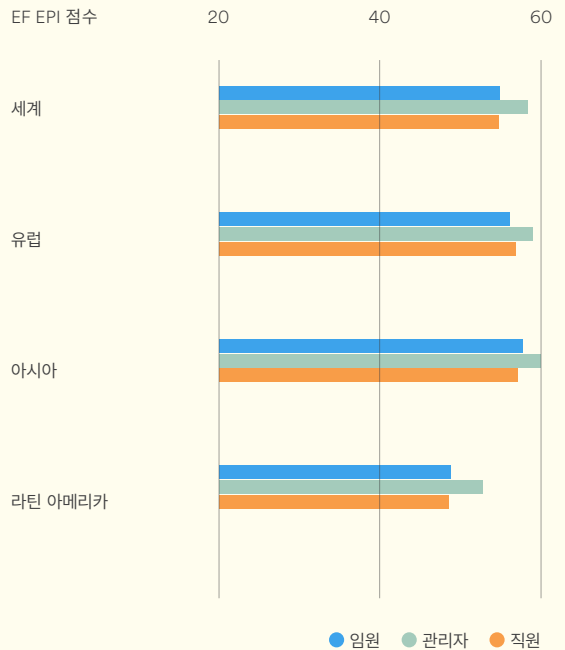
승진

자료에 의하면, 모든 지역에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임원 혹은 일반 직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격차는 성인 평균 영어 능력이 가장 낮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남미의 기업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하면 주니어 레벨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소위 “영어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원급에 지원할 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더욱 까다롭고, 여타 리더십 자격 조건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임원들은 평균 직원들보다 대개 나이가 많으며,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영어 마스터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임원직에 항상 적합한 후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무별 EF EPI



직급별 EF EPI



영어와 경제

공용어를 사용하면 국제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될수록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세계화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수출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20%에 육박하며, 이처럼 국제 무역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사는 기업 경영의 용이성과 국가의 영어 능력 간, 그리고 영어 구사와 광범위한 물류 관련 지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 개발

전 세계 경제와 관련하여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과 순수익,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도표 C). 엄밀히 말하면 영어 능력이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이끌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과 경제 성장 간 복잡한 관계를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넓은 계획 안에서 영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수록 영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그 향상된 영어 능력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반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시설과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제조업 덕분에 부유한 국가들과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고갈됨에 따라 이들이 국제 무역 기회들을 활용하고 서비스 부문 산업을 개발하려 한다면 아동과 성인 모두를 위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인적 자산 개발 지수와 영어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도표 D).

원거리 서비스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경제 활동 중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상품보다 수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iPhone은 어디로든 운송이 가능하지만 회계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능력은 한 국가의 서비스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력당 부가가치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교류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언어 숙련도에 대한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MBA 프로그램이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제2 혹은 제3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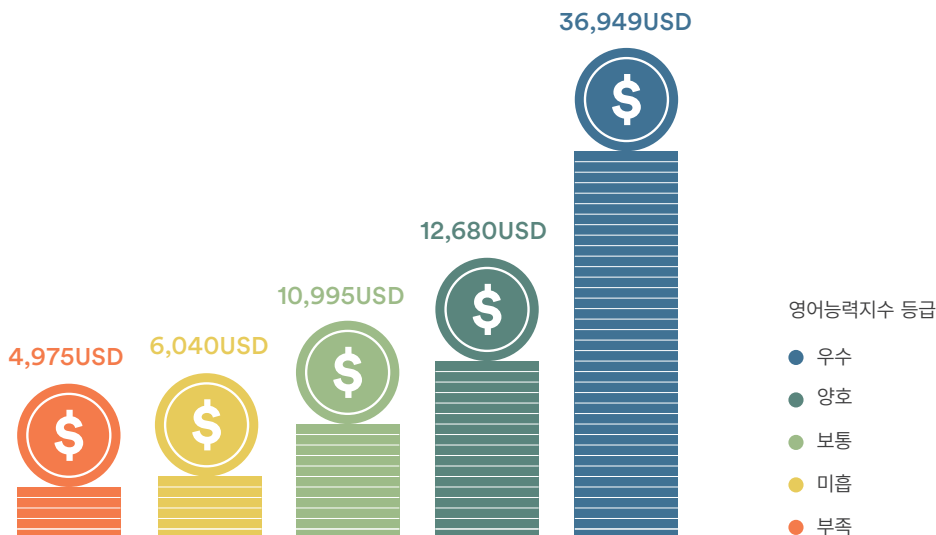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영어

거래 파트너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필요한 요소이지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 요소는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Pankaj Ghemawat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거래량이 42%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술과 시가 일상적인 번역을 보조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인간이 일상의 소통에서 표현하는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엔진이 되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 보호론자들이 비난하는 영어 전용 비즈니스 환경과는 거리가 멀게도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들은 다양한 언어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 간에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 대세이긴 하지만, 다른 언어에 대한 투자도 높습니다. 언어 홍보 담당 국가기관에 따르면, 최소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의 언어를 학습하면 파트너의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끄는 영어

영어 능력과 1인당 조정 순이익을 비롯한 인간 및 경제,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지표 간에 계속해서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출처: 세계 은행(World Bank), 2017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도표 C

영어와 생산성

노동 생산성(USD, 노동 시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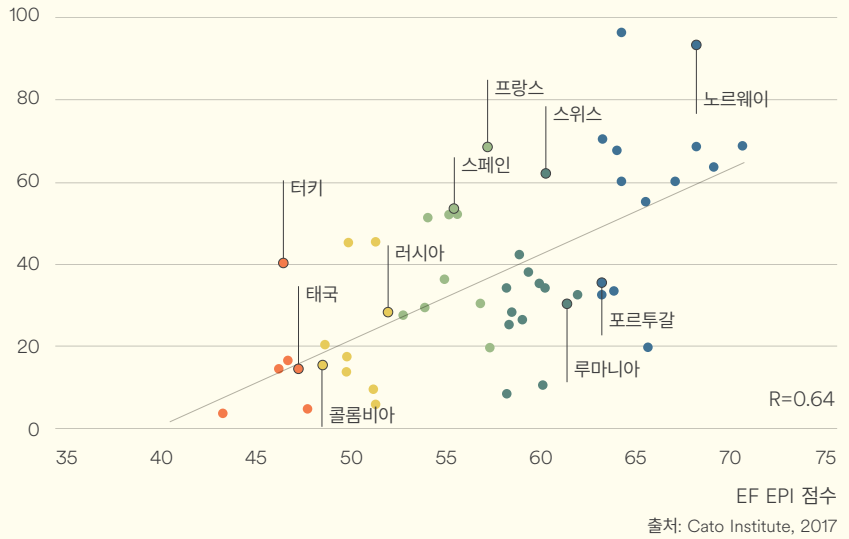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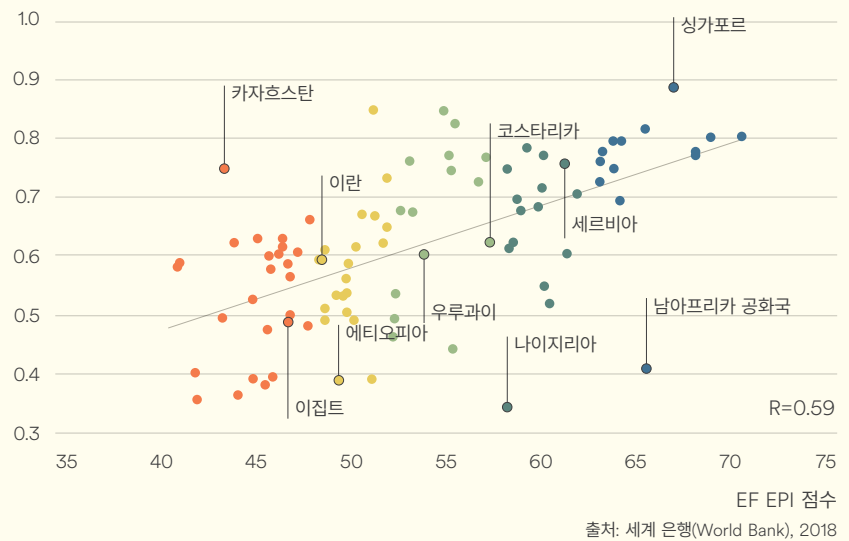


도표 D

영어와 인적 자산

인적 자산 개발 지수(HCDI)



영어와 사회

성인의 영어 실력은 사회의 개방성을 강하게 대변하는 요소입니다. 성인이 영어로 말하는 법을 학습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더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더 많이 관여하며, 성역할에 대해 좀 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글로벌 의사소통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개방성 확대와 불평등 감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의 균형

성인 영어 능력은 Hofstede의 권력간격지수 (Power Distance Index)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조직 내에서 권력이 약한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직장가 가정에서 불평등에 관한 인식에 주목한 것입니다. PDI 점수가 높을수록 전형적인 강력한 위계 시스템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환경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 상식으로 통하며 영어 능력이 낮게 나타납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보면, 더 평등한 협업적 조직이 번성하는 국가와 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불평등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개인의 나이나 서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대체로 영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이 아닌 밖을 보다

영어가 위계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시야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높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소통하고 여행할 의향이 없다면 영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이동을 통해 나머지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민주주의 지수, 시민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글로벌 연결성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를 접한 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글로벌 이슈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습니다. 한 국가가 그 역사와는 별개로 전반적으로 인류애에 현재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결과인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 도표 E)와 영어 능력 간에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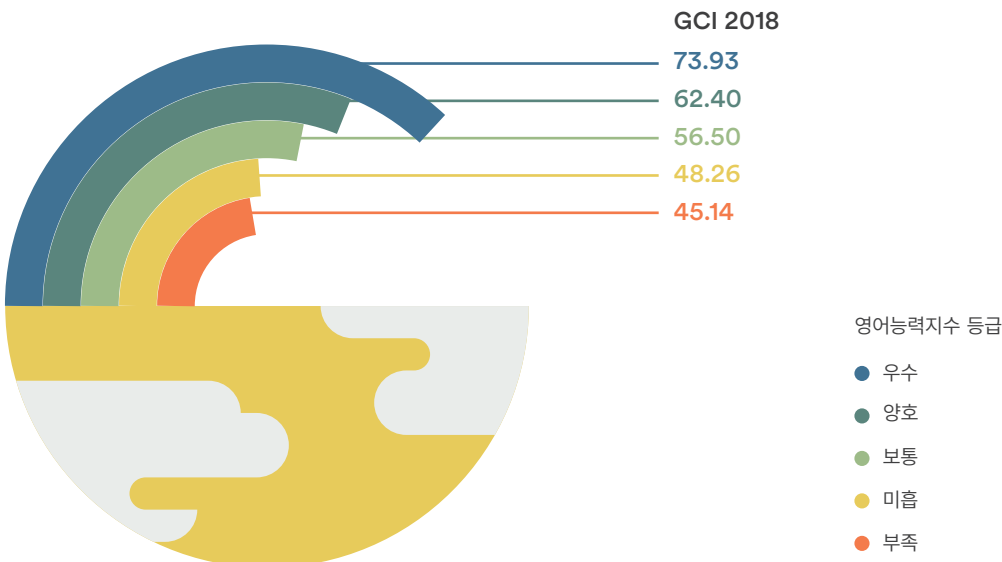
하늘 아래 절반의 사람

여성은 21세기 숙련된 노동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강대국 및 개발도상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는 임금 격차, 구조적 불균형, 그리고 가정에서 본인 몫 이상의 가사일을 할 것이라는 문화적 기대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성역할 관념이 정착된 사회의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합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성별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는 경제적 참여와 교육적 성취, 정치적인 권한, 건강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EF EPI는 이 지수(도표 F)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평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는 더 부유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경향이 있고 사람들이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이야기하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평균 영어 능력과 글로벌 연결성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출처: 글로벌 연결성 지수(Global Connectedness Index), 2018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도표 E

영어와 국제 교류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 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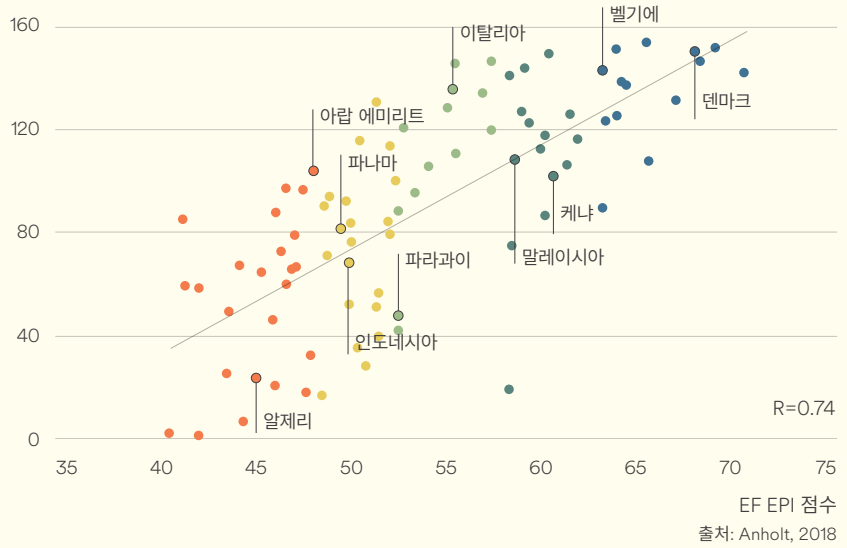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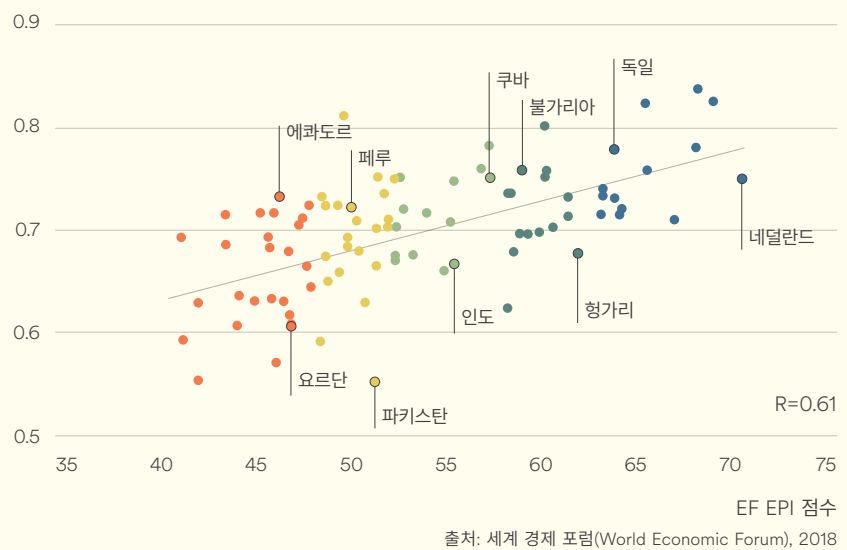


도표 F

영어와 성평등

세계 성별차 지수



유럽

EF EPI 순위

01 네덜란드	70.27	14 크로아티아	63.07	31 프랑스	57.25
02 스웨덴	68.74	15 헝가리	61.86	32 라트비아	56.85
03 노르웨이	67.93	16 루마니아	61.36	35 스페인	55.46
04 덴마크	67.87	17 세르비아	61.30	36 이탈리아	55.31
07 핀란드	65.34	19 스위스	60.23	47 벨라루스	52.39
08 오스트리아	64.11	21 리투아니아	60.11	48 러시아	52.14
09 룩셈부르크	64.03	22 그리스	59.87	49 우크라이나	52.13
10 독일	63.77	23 체코 공화국	59.30	50 알바니아	51.99
11 폴란드	63.76	24 불가리아	58.97	56 조지아	50.62
12 포르투갈	63.14	25 슬로바키아	58.82	79 터키	46.81
13 벨기에	63.09	28 에스토니아	58.29	85 아제르바이잔	46.13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이제 모두 함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이상적인 포럼으로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히 통합된 정치적 및 경제적 연합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공동된 언어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럽은 다른 지역을 여유롭게 제치고 가장 우수한 영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EU와 쎅겐 지역 국가만 지역 평균에 포함한다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성공은 국가 교육 행정과 EU 자체가 다중언어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빠르고 쉬운 의사소통은 교환학생, 여행, 초국가적 업무와 마찬가지로 유럽인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시킵니다. EU 프로젝트에 대한 민족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결속력은 강력해 보입니다.

합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영어 능력을 갖춘 국가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이지만 2017년 이후, 전체 지역에 걸쳐 매우 높은 능력을 갖춘 국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학교 시스템은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춘 조기 교육과 교실 안팎에서의 일상적인 영어 노출, 직업 학교이건 대학이건 상관없이 졸업연도에 직업 관련 언어 교육 시행 등 여러 가지 주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의 활발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회원국 간 선례 보급에 한 몫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 및 정부 출자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이지만 영어 과정은 너무 짧거나 교육 강도가 떨어져서 효과를 보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외부 기관에서 인증되고 교육의 질과 직업 간 이동성이 보장되는

인증 시스템에 기반한 성인 교육을 도입한다면, 특히 높은 연령대에 있어서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첩하지 못한 회원국

유로존의 4대 경제 강국 중 오직 독일만 영어를 잘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데, 이는 EF EPI 이전 판에서도 계속해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3개국 중 프랑스만 지난 2년에 걸쳐 중간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15세 학생의 4분의 1만이 '대체로 맞는' 영어를 몇 문장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의 영어 능력은 2014년 이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공 리서치 기관인 CIS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60%가 영어를 전혀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초등 및 중등 공립 학교에서 커리큘럼의 30%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2중 언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대한 프로젝트가 아직은 성인 영어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어 능력의 차이는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때문인데, 유럽의 나머지 국가와 더 빠르고 손조롭게 소통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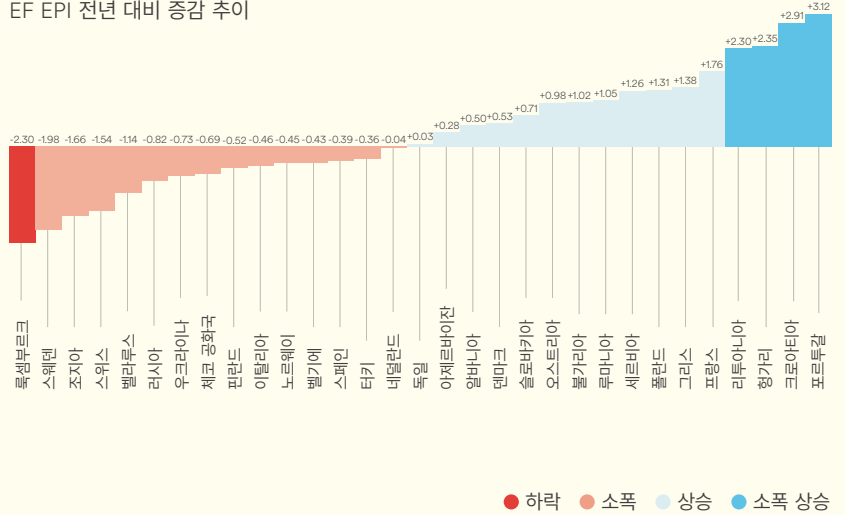
유럽 대륙의 주변부 국가의 영어 능력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꿈이 사라지고 해결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 문제가 등장하면서 지난 5년간 영어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은 실용적인 회화 능력 보다는 문법과 번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교육이 터키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고등학생 수백 명이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일부 듣기도 했으나 정치적 사유로 터키 전역에 걸쳐 중단되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터키 대학생들은 영어 수준이 학위 과정을 수강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집중적인 영어 준비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영어 능력도 역시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점수는 지난 5년 동안 현재 점수에서 1점 내외를 맴돌고 있습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성인의 70%가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며, 11%만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F EPI 추세

유럽은 작년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투아니아는 영어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반면, 룩셈부르크는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3개국은 양호에서 우수 등급으로 이동하였고, 또 다른 3개국은 보통에서 미흡 등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등급이 하락한 국가들이 유럽 대륙에 있지만, 유럽 연합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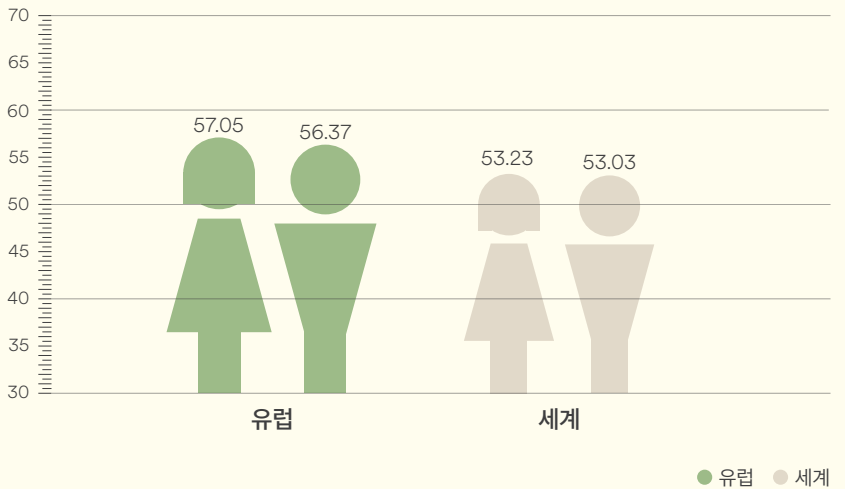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성별 간 격차

전년에 이어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여성의 영어 능력이 남성을 앞서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작아서 작년에는 3점, 그리고 올해는 1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유럽 국가 중 절반 이상에서 여성을 앞질렀고, 덴마크와 루마니아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헝가리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앞서며 성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수 조사 대상이었던 유럽 국가 대다수가 1점 이하의 작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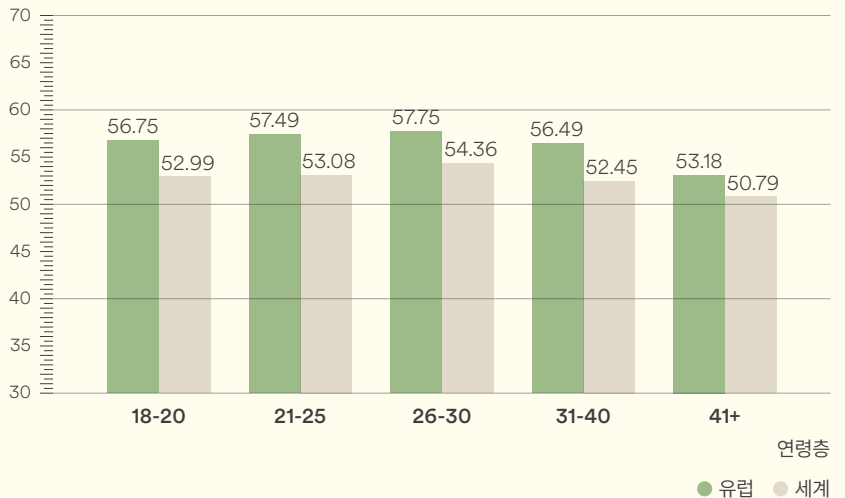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격차

점수가 소폭 하락한 18~20세 그룹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연령대별 점수는 전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20대 후반 성인이 가장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합니다. 주로 전문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영어 교육의 확대가 이러한 경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40세 미만 연령대의 영어 능력의 차이는 전 세계에서 그 폭이 가장 작습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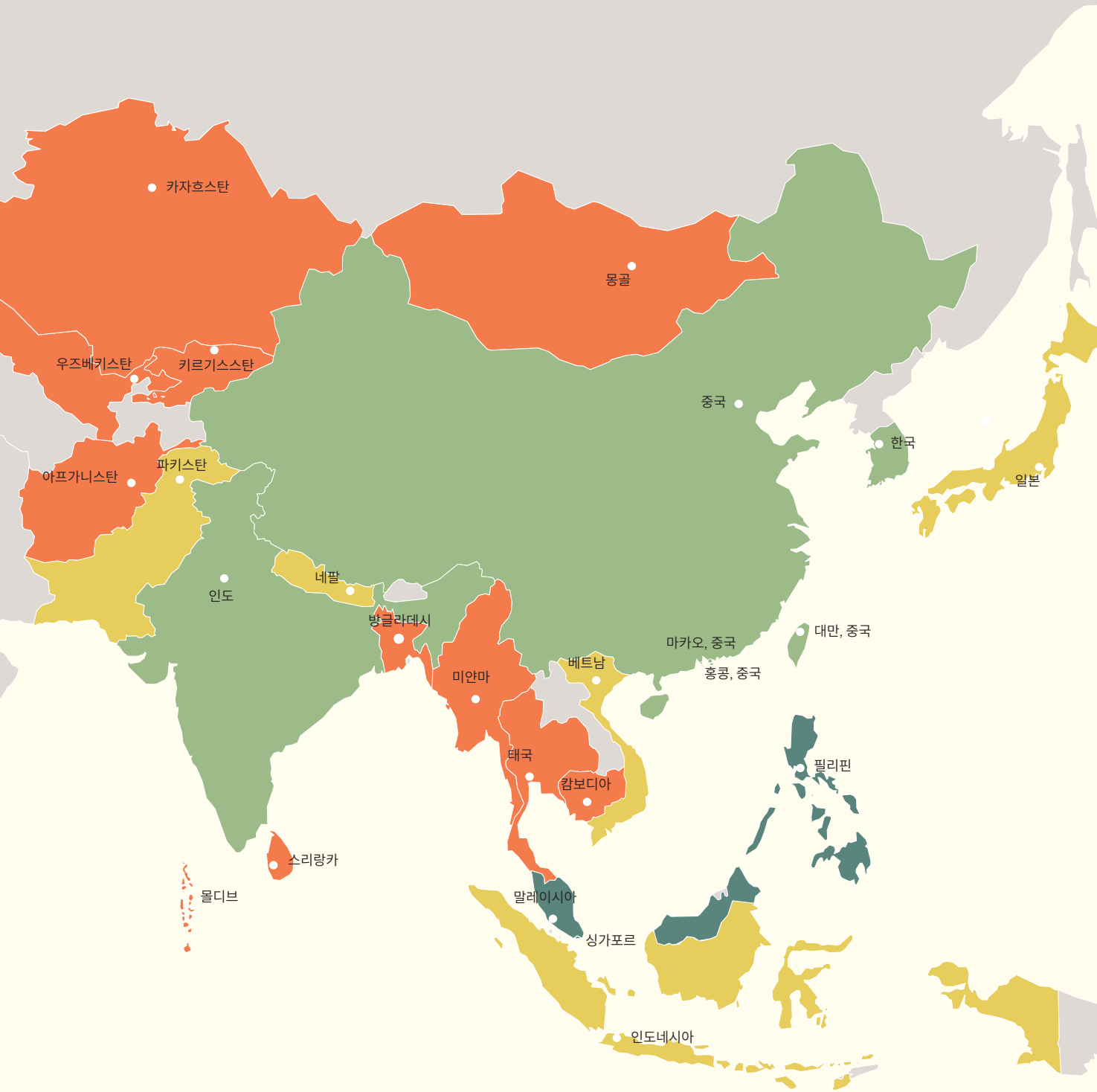


아시아

EF EPI 순위

05	싱가포르	66.82	52	베트남	51.57	86	미얀마	46.00
20	필리핀	60.14	53	일본	51.51	88	몽골	45.56
26	말레이시아	58.55	54	파키스탄	51.41	89	아프가니스탄	45.36
33	홍콩, 중국	55.63	61	인도네시아	50.06	93	카자흐스탄	43.83
34	인도	55.49	66	네팔	49.00	94	캄보디아	43.78
37	한국	55.04	71	방글라데시	48.11	95	우즈베키스탄	43.18
38	대만, 중국	54.18	72	몰디브	48.02	99	키르기스스탄	41.51
40	중국	53.44	74	태국	47.61			
41	마카오, 중국	53.34	78	스리랑카	47.10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개선의 여지

수십 년 동안 아시아는 전 지역에 걸쳐 경제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작업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영어 능력을 좀 더 개발해야 합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평균 영어 능력 점수는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지난 5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균 점수 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이 숨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싱가포르(66.82점)에서 키르기스스탄(41.51점)까지 영어 능력 수준의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올해 인구 가장 지역 평균에서 중국의 영어 능력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변화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민간 사업에 문을 연 후 40년 동안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 이래 전 세계 빈곤 감소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부터 중국은 세계 최상급의 과학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육성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중국은 전국의 학교에 영어 수업을 확대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평가 방법을 개혁하고 외국어 교육을 받은 중국의 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귀국하도록 유도했으며, 주요 대학을 최상의 영어 저널을 출판하는 세계 최상급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데에 투자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장기 계획을 실행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는 거의 없었지만,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통해 정책 개혁과 목적성 있는 투자가 어떻게 한 국가의 영어 능력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 교육?

아시아의 최대 국가 중 일부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장년층 성인이

은퇴를 미루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된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영어를 비롯한 성인 교육 제공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일본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수년간 영어 능력이 하락세인데다가 심지어 경제가 침체되고 글로벌 거래의 축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도 직업 현장 밖의 성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는 유럽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투자를 간과하면 성장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노령화된 인력과 제한된 이민 허용으로 인해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생 교육은 직장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기회의 영역

중앙아시아의 영어 능력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소련 연방의 궤도를 벗어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는 등 국제 무역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습니다. 2018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51개 ChineseKazakh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1,200개의 공동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점점 더 국제 무역에 비중을 둘에 따라 영어 구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스리랑카에서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 경제의 최소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 직군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비교적 낮은 임금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미 연간 3천 8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들은 주로 리조트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부를 좀 더 골고루 분배하고 관광 업계의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진행되는 영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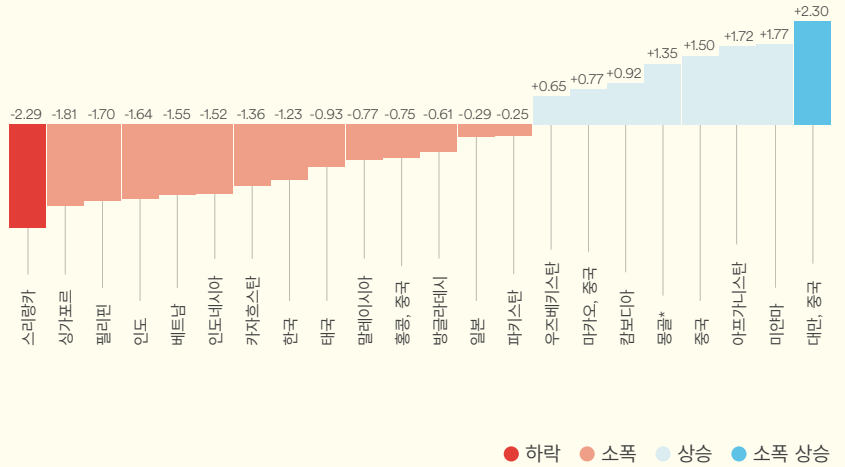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육 시스템은 영어 교육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13명 중 1명은 파키스탄 아동입니다. 인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학년 학생 중 27%만이 두 자릿수의 뺄셈을 할 수 있고, 38%는 간단한 단어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많은 학교가 계속해서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다른 개혁 중에서도 이들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더 많은 학생에게 모국어로 강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중심 주제의 이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영어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경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탄한 다국적 기업을 설립한 리더들이 이러한 아시아 경제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비스 및 지식 기반 산업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좀 더 폭넓은 인구층에 수준 높은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일부 맥락에서는 성인 대상의 교육도 거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EF EPI 추세

보통은 2점 이하이긴 하지만 올해는 아시아 국가 및 지역 대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이 하락했습니다. 오직 대만, 중국만 상당한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2018년까지 부족 등급에 머물렀던 스리랑카가 다시 부족 등급으로 돌아갔고, 이를 포함해서 6개국이 새로운 등급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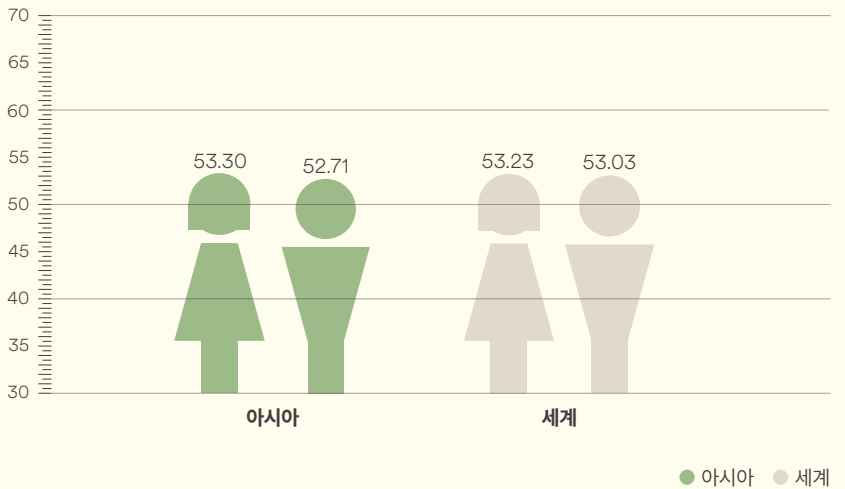


* 이 국가는 EF EPI 제8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성별 간 격차

평균적으로 아시아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같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성별 간 격차는 클 수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별 간 격차가 1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몰디브에서는 여성의 영어 능력이 남성보다 최소 2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남성이 여성을 상당한 점수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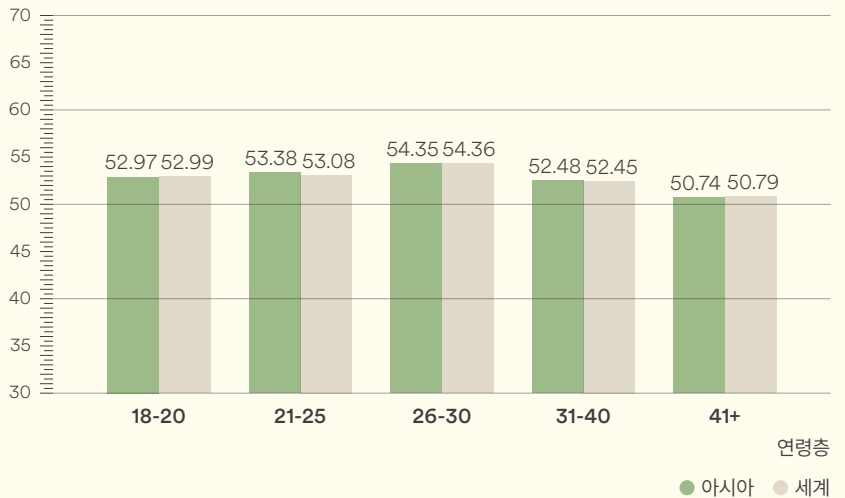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격차

26~30세의 성인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영어 능력 점수가 전년 대비 더 낮아졌으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 직장인이 가장 탁월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F EPI 점수



라틴 아메리카

EF EPI 순위

27 아르헨티나	58.38	58 페루	50.22
30 코스타리카	57.38	59 브라질	50.10
39 우루과이	54.08	60 엘살바도르	50.09
42 칠레	52.89	62 니카라과	49.89
43 쿠바	52.70	64 파나마	49.60
44 도미니카 공화국	52.58	67 멕시코	48.99
45 파라과이	52.51	68 콜롬비아	48.75
46 과테말라	52.50	73 베네수엘라	47.81
51 볼리비아	51.64	81 에콰도르	46.57
57 온두라스	50.53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투자한 만큼의 결과

수년간의 침체기를 겪은 후, 라틴 아메리카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마침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EF EPI에 포함된 19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12개국이 전년 대비 성인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5개국은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하락으로 인한 부담으로 전체 인구 기준 지역 평균의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고무적입니다.

투자 성공 사례

지난 20년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능력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계는 영어 구사자에 대한 필요성에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폭넓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인의 영어 능력 수준만을 기준으로 이러한 개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국가적인 테스트의 학생층 분석 결과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은 이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영어 능력이 2년 연속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이긴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스타리카는 교사 훈련과 채용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의 87%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영어 교사가 고등교육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시험 결과를 보면, 코스타리카 영어 교사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우루과이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도 원격 영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였습니다. 도시의 공립 학교는 현재 모두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2014년에는 졸업 시험에서 A2 레벨 이상을 받은 초등학생이 56%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거의 80%에 달합니다.

비록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볼리비아는 지난 10년 동안 극도의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농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문맹률이 낮아졌고,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영어 능력 또한 지난해 이래로 2.77점 상승하였습니다.

안정성과 성장

라틴 아메리카는 폭력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으로, 살인율이 높은 전 세계 50대 도시 중 42개 도시가 이에 속합니다. 이들 도시 중 15개가 멕시코에, 14개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국가는 2017년 이래로 영어 능력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와 폭력 수준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두 지수 모두 국가 서비스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높은 폭력 수준으로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꼽히지만, 안전과 치안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2015년 이래 절반으로 줄었고, 온두라스 역시 2011년 이후 동일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이들 3개국은 지난해부터 영어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아직 절대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폭력 수준과 영어 능력 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사회가 부강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공평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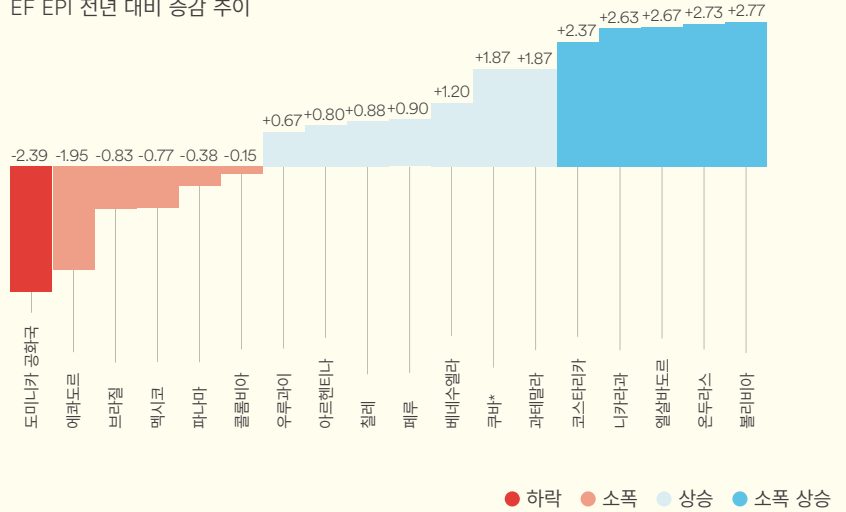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에서 영어를 법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영어 수업에 대한 접근성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법적으로 영어 의무 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0%가 채 안됩니다. 2014년 기준, 에콰도르의 경우는 7% 미만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특히 시골과 도시 지역, 그리고 사립과 공립 학교들 사이에서 극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장에서 영어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학교 교육은 미흡하여 엄청난 수의 직장인이 따로 영어 교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브라질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의 87%가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사비로 영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F EPI 추세

눈에 띄는 점수 상승을 보인 5개국을 포함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3분의 2가 영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만 상당히 많이 하락하였고, 6개국이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갔으며, 보통 등급에 속하는 국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점수 폭은 좁은 편입니다. 최고점을 받은 아르헨티나와 최저점을 받은 에콰도르 간의 점수 차이가 겨우 12점에 불과합니다.

* 이 국가는 EF EPI 제8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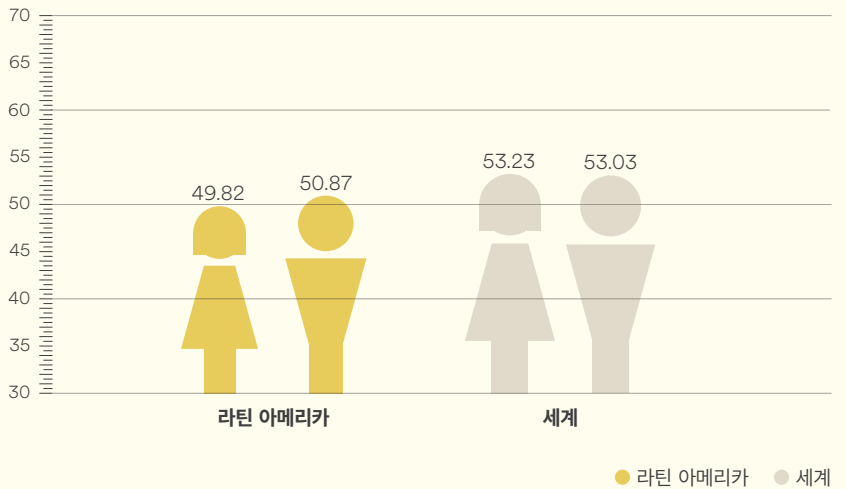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성별 간 격차

라틴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별 간 격차는 작습니다. 이들 국가 중 절반 이상에서 남성이 여성의 점수를 앞섰고, 멕시코와 파나마에서는 점수 차이가 2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국가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격차는 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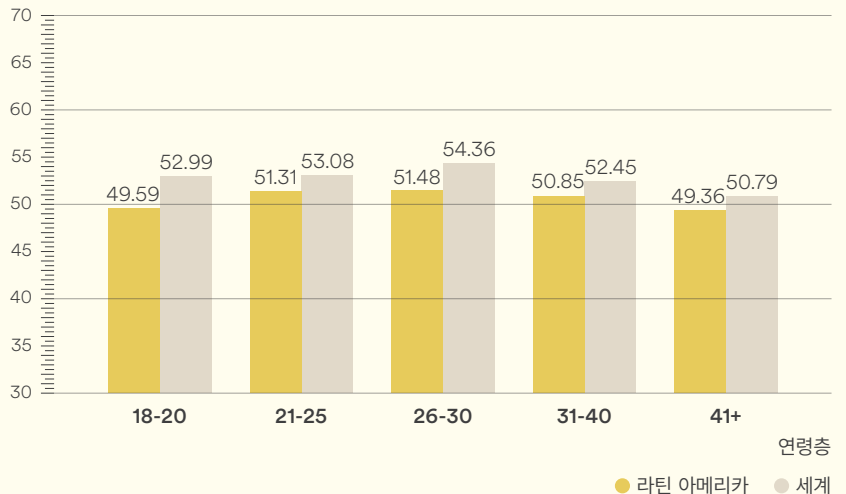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격차

라틴 아메리카의 청년층은 영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으나 장년층은 향상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지역의 인구학적 패턴과는 대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이 평균적으로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만큼이나 영어를 잘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연령군 사이에 점수 차이가 겨우 2점 정도로 작습니다. 이 지역의 성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년층의 영어 능력 향상은 아마도 기업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 투자의 결과이며, 영어 언어 미디어에 좀 더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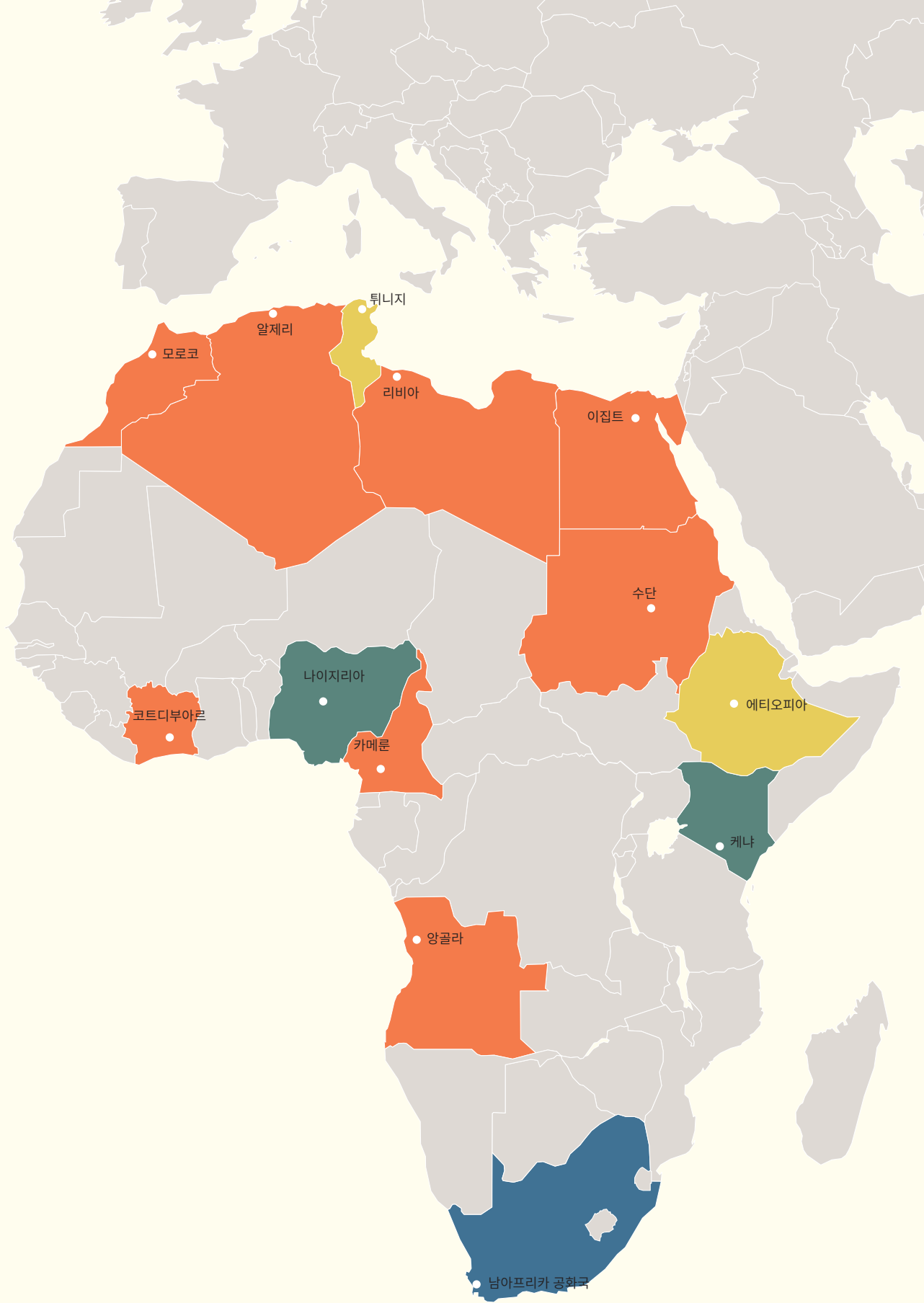


아프리카

EF EPI 순위

06	남아프리카 공화국	65.38	83	카메룬	46.28
18	케냐	60.51	87	수단	45.94
29	나이지리아	58.26	90	알제리	45.28
63	에티오피아	49.64	91	앙골라	44.54
65	튀니지	49.04	96	코트디부아르	42.41
76	모로코	47.19	100	리비아	40.87
77	이집트	47.11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회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인프라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더 나은 영어 능력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식민지 강국들, 특히 프랑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가장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외국인 투자 물결을 몰고 온 것은 중국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무역 거래,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아프리카에는 320개 이상의 대사관과 영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식민지 탄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 부를 향한 과거의 쟁탈전은 아프리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향상되면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아프리카 파트너들이 좀 더 투명한 계약을 맺고 좀 더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올해의 지수에서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다른 10개국 간에는 메워질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기도한 이 3개국이 지수의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지수에는 아프리카의 13개 국가를 포함할 정도의 데이터만 확보되었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를 명확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영어 능력 지수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것보다 영어 능력 분포가 더 넓게 퍼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아프리카 성인들이 영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평등은 아프리카 전체에 만연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빈민가에 둘러싸인 고층 빌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시건 지방이건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구조적 및 역사적 이유가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UN은 향후 35년 안에

아프리카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30대 도시 지역 중 21개 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어마어마한 수의 청년층이 유럽으로의 이주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모국어 교육

식민지 역사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마음 속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유럽 언어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현지 학교 시스템에서 종종 그들의 언어보다는 영어나 프랑스어 교육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관례를 깬 때가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를 읽고 쓰는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은 이것이 영구적으로 약점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탄자니아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모두 교육 시스템에서 강의 언어로 식민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수업을 영어 대신 아동의 모국어인 콰(Kom)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5년 후 콰를 사용해 교육을 받은 아동이 영어를 비롯하여 모든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매일 키와힐리(Kiswahili)어 수업을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양한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 강의로 전환하려면 커리큘럼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이 모국어를 사용하고 쓸 줄 알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국제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는 이점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지역들 간에는 이 언어가 지역 사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어떤 언어를 가르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수년간의 모국어 교육의 이점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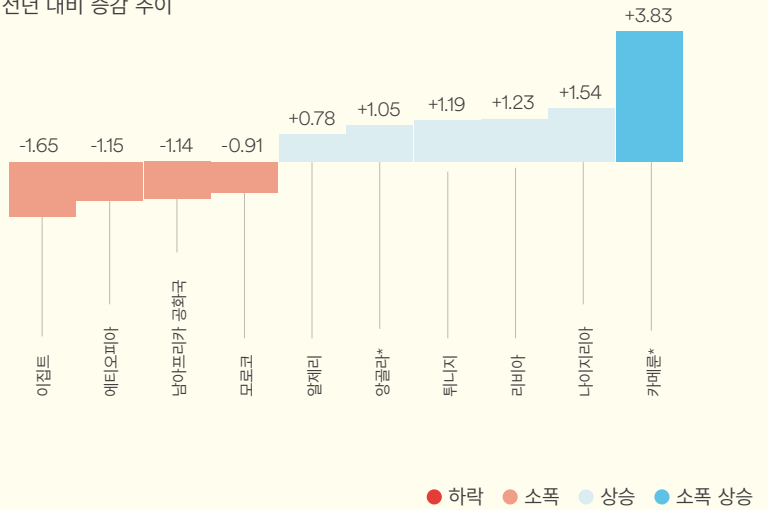
북아프리카 성인의 영어 능력은 중동의 동일한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의 언어 환경은 아랍어 현지 방언과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현대 표준 아랍어 모두가 개인의 삶과 교육 시스템,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영어는 이러한 복잡한 언어 환경에 새로 등장한 언어이지만 특히 중립성과 사업적 잠재성 면에서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와 리비아, 튀니지는 모두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할 청년 인재를 준비하려면 영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더 활발한 개방과 교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북아프리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청년층의 4분의 1이 현재 실직 상태이며, 성평등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 중 26%만이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이들의 급여는 남성에게 비해 30~50% 더 적습니다. 이러한 성역할은 테러리즘에 대한 미디어 공포증과 부족한 영어 실력과 결합되어 북아프리카인들의 '타자화'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F EPI 추세

나이지리아와 튀니지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이 지수에 포함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영어 능력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카메룬(지난해 지수에 포함될 만큼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음)과 나이지리아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영어 능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집트는 2018년 이래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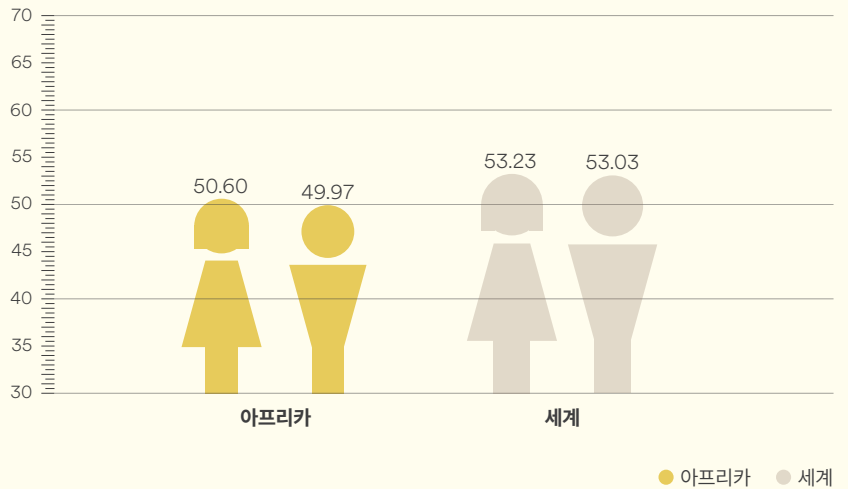


- 이 국가는 EF EPI 제8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성별 간 격차

아프리카의 영어 능력의 성별 간 격차가 전년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평균 영어 능력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간 격차가 극도로 작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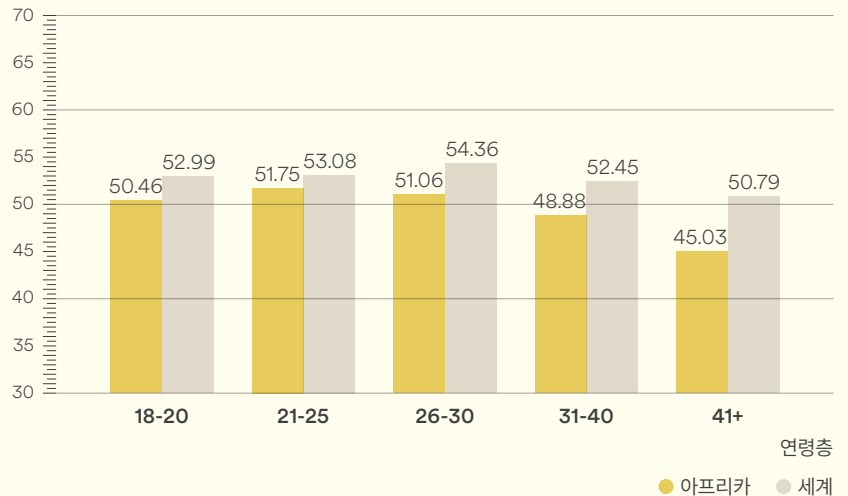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격차

30세 미만 성인과 장년층 간에 상당한 점수차를 보이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청년층은 최고의 영어 능력을 보였습니다. 젊은 대륙에서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성인이 가장 젊은 층이 아니라 21~25세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26~30세 연령층입니다. 이들 청년층은 직업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때 영어 능력 향상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은 역시 연습이 최고입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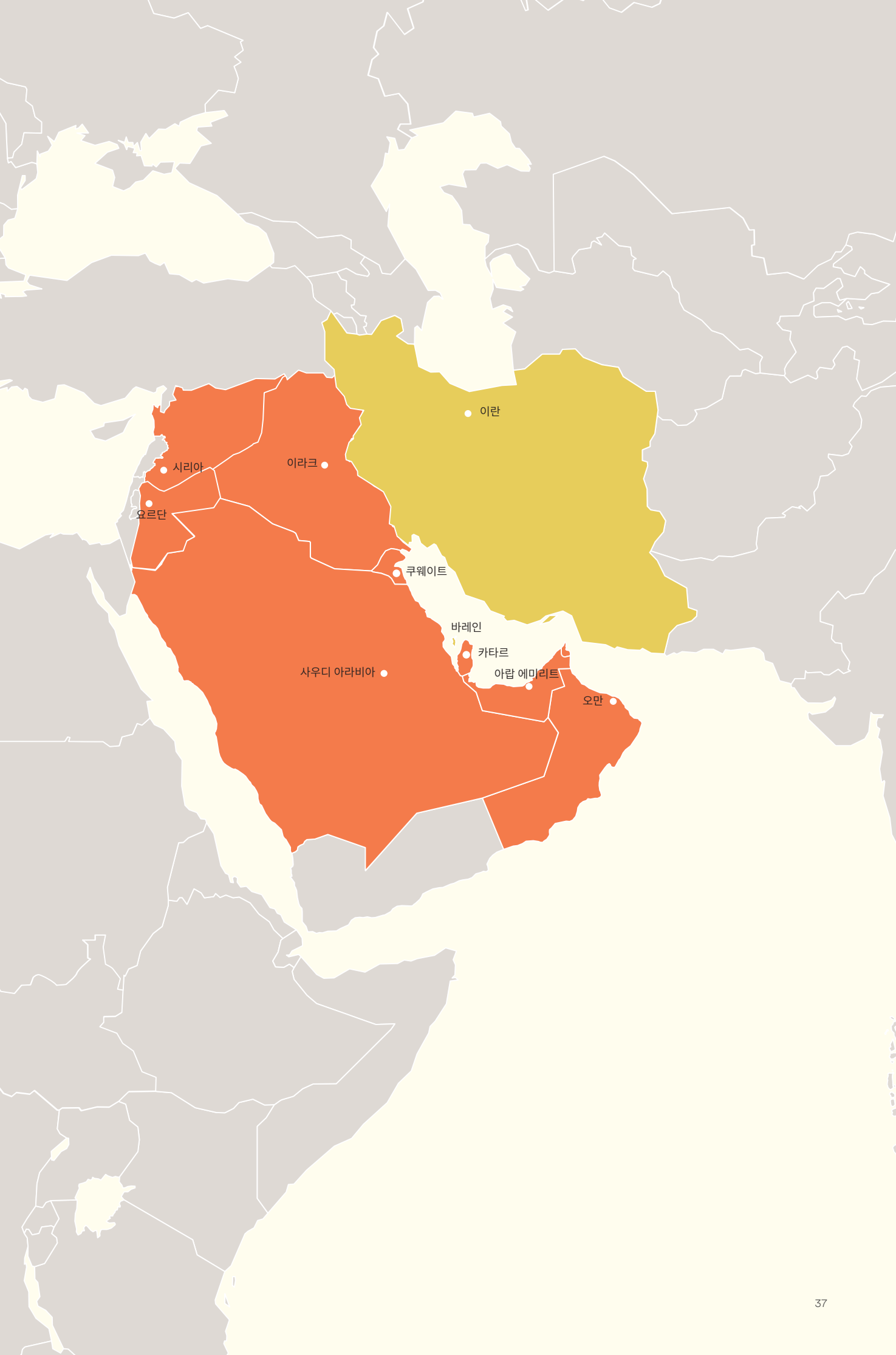


중동

EF EPI 순위

55	바레인	50.92	82	시리아	46.36
69	이란	48.69	84	쿠웨이트	46.22
70	아랍 에미리트	48.19	92	오만	44.39
75	요르단	47.21	97	이라크	42.39
80	카타르	46.79	98	사우디 아라비아	41.60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변화를 위한 준비

한때 과학과 문학, 무역에서 앞서갔던 중동의 문화는 오늘날 최신 연구 및 경제적 생산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동 인구의 절반이 30세 미만인데, 공공부문이 이들을 모두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국가들은 일명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가 곧 과거의 영광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들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는 젊은 인구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

지난 20년 동안 걸프 지역 국가들은 고등 교육 제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다른 개혁들 중에서도, 정부 지도자들은 공립 대학들의 독점을 축소시키고, 서양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립 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및 카타르의 관료들은 서양의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여 자국에 위성 캠퍼스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조치의 결과, 국립 대학이 교육 과정을 서구화하고 일부 학위 프로그램을 영어로 변경하는 등 개혁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런 결과

안타깝게도 학생들에게 기초 교육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서 문맹률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최근 PISA 테스트에서 요르단과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테스트에 참여한 15세 참여자가 읽기와 수학, 과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4학년용 최신 TIMSS

테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11개 국가 중 8개국이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사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동 지역의 영어 능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 능력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중동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국가 대부분에서 인구의 30% 이상이 해외 태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민자 중 일부는 도착하면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학생 100만 명이 아랍 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민간 교육 기관인 영어 K-12 학교에 등록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총학생 수의 20%에 해당합니다. 걸프 지역 국가의 고등 교육 기관 다수에서 일부 혹은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평균 영어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당면한 과제

일부 국가에서는 영어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공평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 데이터에 따르면, 두바이와 테헤란의 경우 국가 전체보다 영어 능력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구는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모든 학교에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특히 영어를 구사하는 성인의 수가 너무 낮은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다른 거대한 국가들도 동일한 문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사립 학교와 대학들이 해외 출신 교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영어를 구사하는 현지 교사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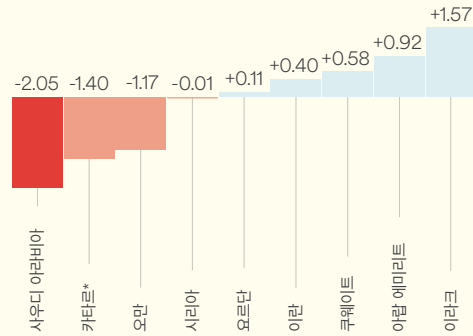
다른 국가의 경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사회 기초 서비스에 자원이 소모되면서 교육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인 100만 명 이상이 이란에 살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 2백만 명 이상, 시리아인 백만 명 이상이 요르단에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전체 인구가 천만 명이 채 안 되는 데 말입니다. 일부 국가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소란에서 벗어난 이라크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취약한 경제, 지속적인 갈등, 공공부문 고용에 대한 과잉 의존 등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젊은 청년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지역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열악한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적 긴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전환이 손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F EPI 추세

올해 지수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을 제외한 중동 대부분 국가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점수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이란은 영어 능력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중동은 어떤 지역보다도 점수 분포의 폭이 좁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바레인 간의 점수 차가 겨우 9점이었습니다.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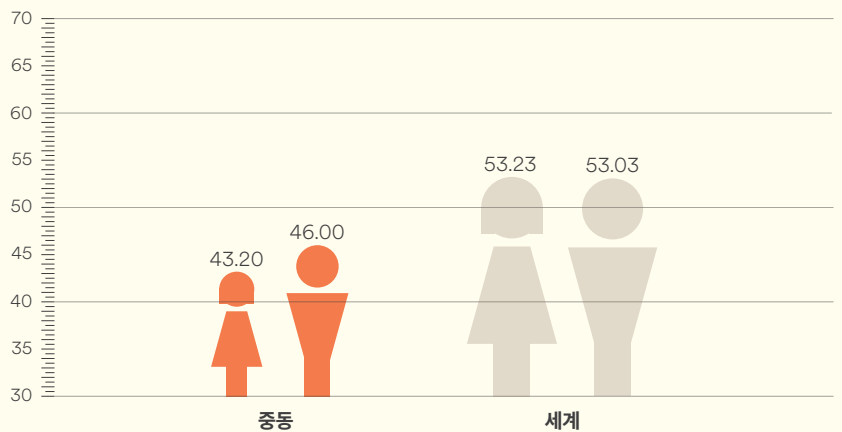
* 이 국가는 EF EPI 제8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 하락 ● 소폭 ● 상승 ● 소폭 상승

성별 간 격차

올해 중동의 영어 능력에서는 성별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대학생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졸업 후 일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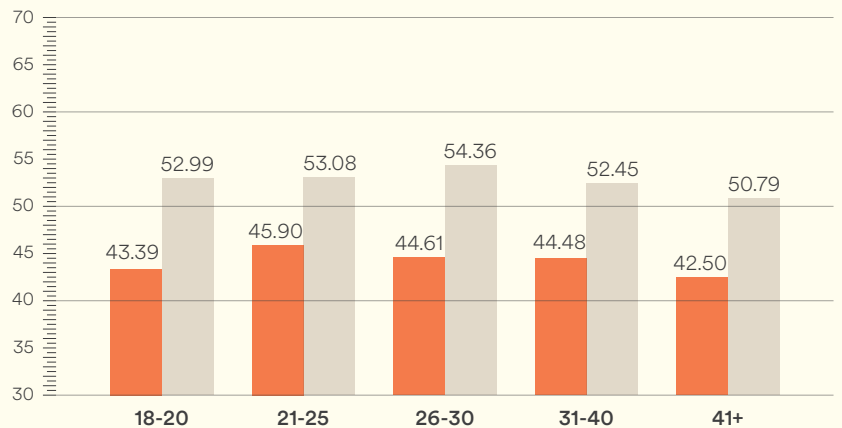


● 중동 ● 세계

세대 간 격차

중동은 연령대 간 영어 능력 점수 분포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데이터에 따르면 학교의 영어 교육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서 18~20세 및 21~25세 그룹 모두 영어 능력 점수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중동의 대학 졸업자들도 40세 이상의 성인과 대략 비슷한 영어 능력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F EPI 점수



연령층
● 중동 ● 세계

결론

현재까지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고 있는 제2언어입니다.

유럽 중고등학생의 97%가 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학교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는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EF를 통해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공부할 언어로 영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러한 대대적인 공공 및 민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정도로 고르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수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도 정작 대화는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영어 실력이 자신의 야망을 따라갈 수 없을 경우 미래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업무 현장에서 영어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는 인터넷이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고, 영어가 항상 교육되지 않았고, 선택 과목의 일부로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빠르게 진화하며 초연결 세계가 된 지금,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영어(Cambridge English)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분의 3이 비즈니스를 위해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을 포함하여 수십 년 전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현재 글로벌 일자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어 능력이 출중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영어 교사

기술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또한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나누어주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도구 활용을 위한 교사 교육 등 진정한 디지털화를 이룬다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교사가 강의를 맞춤화할 수 있어 학생에게 진정한 자료 및 연습 모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챗봇으로 학생들이 대규모 수업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회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과목별 지원과 코칭, 전문적인 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영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대부분의 국가에 해당)에서는 학습 자료가 탑재된 기기와 AI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기본적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교사 훈련이 매우 시급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첨단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교사를 교육 시키는 것(영어 및 다른 과목 포함)에 교육부 대다수가 이미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로 교사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학습

아동의 뇌는 특별히 언어 학습에 매우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영어를 학습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생 후반부인 4분의 3의 성공적 커리어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인생 전반부인 4분의 1에서 모두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직업의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문화적 전환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첨단 기술로 인한 혜택은 성인들에게 더욱 희망적으로 작용합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의 유연성은 기업 교육 및 자기개발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광범위한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인에게 지엽적으로만 가능했던 강의보다 좀 더 고품질의 강의를, 그것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단위 자격 인증(micro-credentials)을 통해 직장인과 정부 후원자 모두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품질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빠르고 쉬운 영어 학습의 환상

인터넷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놀라운 3가지 팁, 쉽고 간편한 5단계, 훌륭한 10가지 방법같은 블로그 글들이 널려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영어를 잘할 테니 영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없었을 겁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이 보통 직장에서 영어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 600시간의 수준 높은 강의와 600시간 이상의 말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국어가 영어와 너무 다르거나, 고급 영어 실력이 필요하거나, 외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어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학습자는 본인의 진도가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할 때 매우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당 1~2시간에 불과한 영어 코스를 선택하면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1,200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대규모로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고용주와 정부 역시 이러한 환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영어로 말해볼 기회가 없는 포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이들 과정의 유일한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뿐, 이것도 결과를 알기 전까지일 뿐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환상을 깨고, 연습에 집중할 때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영어 사용 학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이거나, 완벽하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 체계에서는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많은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관련 연구를 보면, 글을 읽고 쓰고 수를 셀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모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중국어와 스페인어, 다른 높은 지위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히 납득될 수 있지만, 수백 가지의 하위층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국어 교육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파키스탄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가진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 계층이 영어를 사용하고 학생과 부모, 교사는 영어를 거의 모릅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층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시스템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사용 학교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엘리트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규모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을 경우,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경우, 아이들은 영어를 배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실력이 이보다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려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노력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언어를 공유하려면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사람들은 연결되기를 원하고, 연결이 필요하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 뒤쳐져 있습니다. 영어와 영어를 접할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시스템,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권장사항

현대 사회에서 조직과 개인 대다수가 영어 능력의 이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학습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영어 수업,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속한 조직, 국가, 학교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고, 기회를 놓치고 좌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유일한 솔루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패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업용

- 각 개인의 현재 수준과 목표 능력 수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 지사들을 포함하여 국제주의 및 이동성의 문화를 구축합니다.
- 다양한 국가에 있는 팀들이 자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 백오피스를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다양한 다국적 팀을 구축합니다.
- 전직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여 영어의 전략적인 약점을 파악합니다.
- 특정 직무를 위한 영어 커리큘럼을 통해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 대규모로 유연하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 다양한 직무별 최소 영어 능력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실력 있는 영어 구사자를 고용합니다.
- 영어 실력 향상에 시간을 투자하는 직원에게 보상합니다.
- 임원과 관리자가 영어 학습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영어 학습에 앞장서도록 독려합니다.

정부와 교육 기관용

- 각 주요 교육과정 단계에 따라 커리큘럼 내에서 영어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시간과 달성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목표를 고려합니다.
- 교사와 학생 모두가 출발점을 벤치마크하고 학습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평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 및 졸업 시험을 개선합니다.
- 모든 신입 교사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이미 교육을 받았다면 영어 교사들에게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방법을 다시 훈련합니다.
- 영어로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어를 잘 하는 사람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 레벨을 설정하고, 교사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추가 교육합니다.

- 아이들이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도록 모국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 모든 공무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의 현재 직무뿐만 아니라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센터 및 실업률 감소 프로그램에서 영어 강의를 제공합니다.
- 성인들에게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 성인 언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인증하고 기술의 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단위 자격 인증제(micro-credentials)를 개발합니다.
- TV와 영화를 볼 때 더빙이 아닌 자막으로, 원어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사와 학교, 대학용

- 의사소통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어를 가르칩니다.
- 영어 클럽과 테마의 날, 학급 결연, 학교 견학, 초청 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학생에게 자주 제공합니다.
- 교사들이 선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고 효과적인 영어 교습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 교사에게 자신의 영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 모든 대학의 전공에 영어 능력 요구 조건을 포함합니다.
- 학생 및 교수 모두가 필수 영어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과목은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용

- 영어 학습은 장기전이므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향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백 시간으로 계획합니다.
- 여러 단계를 하나 하나 달성하는 기회를 갖고 본인의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며 격려합니다.
-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매일 영어를 공부합니다.
- 한 번에 몇 시간을 공부하기보다는 20~30분 단위로 학습합니다.
-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합니다.
- 직업 혹은 학습 분야와 관련된 어휘를 암기하고 이를 즉시 활용합니다.
- 책을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더라도, 말하기 연습은 따로 합니다.
- 영어로 된 TV를 시청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 영어권 국가로 여행할 때는 최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지수 정보

방법론

EF EPI 제9판은 2018년 전 세계에서 EF 표준 영어 테스트(EF SET) 또는 영어 배치 고사를 치른 2백 3십만명 이상의 응시자로부터 추출한 시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F 표준 영어 시험

EF SET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입니다. 또한, 응시자의 언어 능력을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에 따라 6가지 레벨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으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EF SET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 SET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efset.org/research를 방문하세요.

EF EPI 2019 점수는 TOEFL iBT 2017 점수($r=0.80$) 및 IELTS Academic Test 2017 점수($r=0.74$)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이들 시험이 설계 방식이나 응시자 프로필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영어 능력의 동향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응시자

비록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성인층에 치중되어 있지만, EF EPI는 균형 있는 성비와 다양한 연령대 성인들의 영어능력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성 응시자는 전체 표본의 59%를 차지합니다.
- 성인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3세입니다.
- 전체 응시자의 83%가 35세 미만이며, 99%는 60세 미만입니다.
- 남성 응답자의 중간 연령은 24세로, 여성 응답자 중간 연령인 23세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최소 400명 이상인 도시와 지역, 국가만 지수에 포함시켰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험 응시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EF EPI 이전판에는 세네갈과 레바논, 슬로베니아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판에서는 이들 국가의 시험 응시자 수가 충분치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표본 편차

본 지수의 시험 응시자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궁금한 사람이 이들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보다 영어 실력이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이므로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일부러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EF SET은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인입니다. 어디에서나 EF SET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시험 응시자의 30%가 모바일 기기에서 시험을 완료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포맷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본 편차로 인해 빈곤하고 교육을 덜 받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온라인 시험은 광범위한 지표에 관한 매우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전 세계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점수 산정

EF EPI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2018년 4대 영어 공인 시험과 EF EPI 지수를 포함하여 5개 가중치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연도의 지수를 포함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안정화되지만 이전 연도의 시험 응시자들을 이번 연도의 응시자 수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평균은 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합니다.

점수 임계값에 따라 국가와 지역, 도시별 영어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대륙 내의 국가 및 대륙 간의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등급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및 EF 강좌 수준과 일치합니다.

- 우수 등급은 CEFR의 B2 레벨에 해당합니다.
-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CEFR B1 레벨에 해당하며, EF 강좌 레벨과도 동일합니다.
- 부족 등급은 CEFR의 A2 레벨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료 출처

EF EPI는 국내 평가 결과 및 언어 관련 투표 자료 혹은 기타 자료와 경쟁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자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세밀한 대신 특정 연령대, 국가, 지역, 응시자 프로필에 제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EF EPI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폭넓은 자료입니다. EF EPI와 견줄만한 크기와 범위를 가진 자료는 없으며, 자료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 학자, 분석가들과 함께 영어 교육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F EPI는 유로모니터나 갤럽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OECD의 성적 조사인 PISA나 PIAAC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을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표본은 보통 몇천 명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표본 선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능력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영어 능력 자료는 국내 교육 체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표준화된 국내 평가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 혹은 대학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육자와 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이용해 교육 체계 개편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내 평가는 각국 간의 호환이 불가능하며 성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전 세계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고등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성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EF EPI 보고서

EF EPI 보고서는 총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영어 능력을 다루고 매년 발간되는 본 EF EPI 보고서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영어 능력을 다루어 2년 마다 발간되는 학생용 보고서 (EF EPI-s)가 있습니다. 올해는 EF EPI 제9판과 EF EPI-s 제3판이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EF EPI 보고서는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www.ef.com)는 언어와 학문, 문화 교류, 교육적 여행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연다”입니다. 50개국에 600개 이상의 학교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EF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교육 후원사입니다. EF 영어능력지수는 Signum International AG가 발표합니다.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관하여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활용하면 영어 능력이 비슷한 국가를 쉽게 파악하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은 해당 등급에 포함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는 각 등급별로 상위 3개국을 표시하였으며, EF EPI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및 지역에서만 조사하였습니다.

우측의 표는 개인이 각 영어능력지수 등급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등급 간에 영어 구사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일 뿐임을 밝힙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영어 능력을 비교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어능력지수

우수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 상황에 적절한 말투와 언어 구사하기
- ✓ 수준 높은 문장을 쉽게 읽기
- ✓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계약 내용 협상하기

양호

헝가리
케냐
필리핀

- ✓ 직장에서 발표하기
- ✓ TV 프로그램 이해하기
- ✓ 신문 읽기

보통

중국
코스타리카
프랑스

-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
- ✓ 노래 가사 이해하기
- ✓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하기

미흡

볼리비아
파키스탄
러시아

- ✓ 영어권 국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 ✓ 직장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
- ✓ 직장 동료의 짧은 이메일 이해하기

부족

방글라데시
몰디브
아랍 에미리트

- ✓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이름, 나이, 국적 등)
- ✓ 간단한 표지판 이해하기
- ✓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고급 영어 사용자

-
- C2**
-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듣는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 C1**
-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목적에 따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중급 영어 사용자

-
- B2**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인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 B1**
-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초급 영어 사용자

-
- A2**
-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A1**
-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인증문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 에서 B2 등급 내에 위치하였습니다.

EF EPI 국가 및 지역별 점수

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다음의 EF EPI 점수 변화는 EF EPI 제8판과 제9판 사이의 점수 변화입니다. 상승 또는 하락 폭이 2점 이상인 경우는 영어 능력의 뚜렷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EF EPI 제8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수집한 자료이며 제9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8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EF EPI 제8판	EF EPI 제9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네덜란드	70.31	70.27	-0.04
스웨덴	70.72	68.74	-1.98
노르웨이	68.38	67.93	-0.45
덴마크	67.34	67.87	+0.53
싱가포르	68.63	66.82	-1.81
남아프리카 공화국	66.52	65.38	-1.14
핀란드	65.86	65.34	-0.52
오스트리아	63.13	64.11	+0.98
룩셈부르크	66.33	64.03	-2.30
독일	63.74	63.77	+0.03
폴란드	62.45	63.76	+1.31
포르투갈	60.02	63.14	+3.12
벨기에	63.52	63.09	-0.43
크로아티아	60.16	63.07	+2.91
헝가리	59.51	61.86	+2.35
루마니아	60.31	61.36	+1.05
세르비아	60.04	61.30	+1.26
케냐	—	60.51	New
스위스	61.77	60.23	-1.54
필리핀	61.84	60.14	-1.70
리투아니아	57.81	60.11	+2.30
그리스	58.49	59.87	+1.38
체코 공화국	59.99	59.30	-0.69
불가리아	57.95	58.97	+1.02
슬로바키아	58.11	58.82	+0.71
말레이시아	59.32	58.55	-0.77
아르헨티나	57.58	58.38	+0.80
에스토니아	63.73*	58.29	-5.44
나이지리아	56.72	58.26	+1.54
코스타리카	55.01	57.38	+2.37
프랑스	55.49	57.25	+1.76
라트비아	57.16*	56.85	-0.31
홍콩, 중국	56.38	55.63	-0.75
인도	57.13	55.49	-1.64
스페인	55.85	55.46	-0.39
이탈리아	55.77	55.31	-0.46
대한민국	56.27	55.04	-1.23
대만, 중국	51.88	54.18	+2.30
우루과이	53.41	54.08	+0.67
중국	51.94	53.44	+1.50
마카오, 중국	52.57	53.34	+0.77
칠레	52.01	52.89	+0.88
쿠바	50.83*	52.70	+1.87
도미니카 공화국	54.97	52.58	-2.39
파라과이	—	52.51	New
과테말라	50.63	52.50	+1.87
벨라루스	53.53	52.39	-1.14
러시아	52.96	52.14	-0.82
우크라이나	52.86	52.13	-0.73
알바니아	51.49	51.99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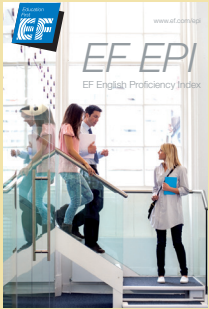
* 이 국가는 EF EPI 제8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EF EPI 제8판	EF EPI 제9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볼리비아	48.87	51.64	+2.77
베트남	53.12	51.57	-1.55
일본	51.80	51.51	-0.29
파키스탄	51.66	51.41	-0.25
바레인	—	50.92	New
조지아	52.28	50.62	-1.66
온두라스	47.80	50.53	+2.73
페루	49.32	50.22	+0.90
브라질	50.93	50.10	-0.83
엘살바도르	47.42	50.09	+2.67
인도네시아	51.58	50.06	-1.52
니카라과	47.26	49.89	+2.63
에티오피아	50.79	49.64	-1.15
파나마	49.98	49.60	-0.38
튀니지	47.85	49.04	+1.19
네팔	—	49.00	New
멕시코	49.76	48.99	-0.77
콜롬비아	48.90	48.75	-0.15
이란	48.29	48.69	+0.40
아랍 에미리트	47.27	48.19	+0.92
방글라데시	48.72	48.11	-0.61
몰디브	—	48.02	New
베네수엘라	46.61	47.81	+1.20
태국	48.54	47.61	-0.93
요르단	47.10	47.21	+0.11
모로코	48.10	47.19	-0.91
이집트	48.76	47.11	-1.65
스리랑카	49.39	47.10	-2.29
터키	47.17	46.81	-0.36
카타르	48.19*	46.79	-1.40
에콰도르	48.52	46.57	-1.95
시리아	46.37	46.36	-0.01
카메룬	42.45*	46.28	+3.83
쿠웨이트	45.64	46.22	+0.58
아제르바이잔	45.85	46.13	+0.28
미얀마	44.23	46.00	+1.77
수단	—	45.94	New
몽골	44.21*	45.56	+1.35
아프가니스탄	43.64	45.36	+1.72
알제리	44.50	45.28	+0.78
양골라	43.49*	44.54	+1.05
오만	45.56	44.39	-1.17
카자흐스탄	45.19	43.83	-1.36
캄보디아	42.86	43.78	+0.92
우즈베키스탄	42.53	43.18	+0.65
코트디부아르	—	42.41	New
이라크	40.82	42.39	+1.57
사우디 아라비아	43.65	41.60	-2.05
키르기스스탄	—	41.51	New
리비아	39.64	40.87	+1.23

인용 자료

- Abbateiello, A., Agarwal, D., Bersin, J., Lahiri, G., Schwartz, J., & Volini, E. (2018). The Rise of Social Enterprise: 2018 Deloitte Global Human Capital Trends. Deloitte Insights. Retrieved from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at/Documents/human-capital/at-2018-deloitte-human-capital-trends.pdf>
- Altman, S. A., Ghemawat, P., & Bastian, P. (2018). 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2018: The State of Globalization in a Fragile world. Deutsche Post DHL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logistics.dhl/content/dam/dhl/global/core/documents/pdf/glo-core-gci-2018-full-study.pdf>
- Anholt, S. (2018). The Good Country Index. Retrieved from <https://www.goodcountry.org/index/results#>
- Astana Calling. (2018). President Addresses SCO Summit, Meets with SCO leaders in china. Retrieved from <https://www.astanacalling.com/president-addresses-sco-summit-meets-sco-leaders-china/>
- BBC News. (2015). How will a population boom change Africa?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34188248>
- Cato Institute. (2017). Labor productivity per hour worked. Human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humanprogress.org/dwdata?p=293&yf=1950&yl=2017>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8).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Chawla, D. S. (2018).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growing fast. Nature Index. Retrieved from <https://www.natureindex.com/news-blog/international-collaborations-growing-exponentially>
- Council of Europe. (2019). Language Education Policy Profiles. Retrieved from <https://www.coe.int/en/web/language-policy/profiles>
-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 Cronquist, K., & Fiszbein, A. (2017). English Language Learning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ialogue.
- The Economist. (2019). Language without instruction: More children around the world are being taught in English, often badly.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19/02/23/more-children-around-the-world-are-being-taught-in-english-often-badly>
- The Economist. (2018). Ed-tech: In poor countries technology can make big improvements to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18/11/15/in-poor-countries-technology-can-make-big-improvements-to-education>
- European Commission. (2017). Infographics: Foreign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2017. Retrieved from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infographics-foreign-languages-school-Europe-2017_en
- Hofstede Insights. (2010). Power Distance Index. Retrieved from <https://www.hofstede-insights.com/>
- Hunt, V., Prince, S., Dixon-Fyle, S., & Yee, L. (2018). Delivering through Diversity. McKinsey & Company. Retrieved from https://www.mckinsey.com/~/_media/McKinsey/Business%20Functions/Organization/Our%20Insights/Delivering%20through%20diversity/Delivering-through-diversity_full-report.ashx
- ICEF Monitor. (2018). Annual survey finds continued growth in international schools. Retrieved from <http://monitor.icef.com/2018/09/annual-survey-finds-continued-growth-in-international-schools/>
- Lanvin, B., & Monteiro, F. (2019).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19. INSEAD, the Adecco Group, & Tata Communications. Retrieved from <https://gtcistudy.com/the-gtci-index/>
- Morin, V. (2019). A l'école primaire de Saint-Baldoph, les élèves apprennent les maths en anglais. Le Monde. Retrieved from https://www.lemonde.fr/education/article/2019/04/11/a-l-ecole-primaire-de-saint-baldoph-les-eleves-apprennent-les-maths-en-anglais_5448838_1473685.html
- Morin, V. (2019). Les élèves français, (presque) toujours aussi mauvais en langues étrangères. Le Monde.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9/04/11/les-eleves-francais-presque-toujours-aussi-mauvais-en-langues-etrangeres_5448641_3224.html
- Mullis, I. V. S., Martin, M. O., Foy, P., & Hooper, M. (2015). TIMSS 2015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Retrieved from <http://timssandpirs.bc.edu/timss2015/international-results/wp-content/uploads/filebase/full%20pdfs/T15-International-Results-in-Mathematics-Grade-8.pdf>
- Oxford Gulf & Arabian Peninsula Studies Forum. (2017). Higher Education in the Gulf States: Present & Future. Gulf Affairs. Retrieved from https://www.oxgaps.org/files/gulf_affairs_spring_2017_full_issue.pdf
- Piekkari, R., Welch, D. E., & Welch, L. S. (2014). Language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 Multilingual Reality of Global Business Expans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Retrieved from <https://www.e-elgar.com/shop/eep/preview/book/isbn/9781784710996/>
- Plan Ceibal. (2017). Evaluación Adaptativa de Inglés en el Sistema Educativo Uruguayo—2017: Informe de resultados. Retrieved from <https://ingles.ceibal.edu.uy/storage/app/uploads/public/5b1/54f/15b/5b154f15b71d6753857147.pdf>
- Thomson Reuters. (2018). Diversity and Inclusion Index 2018. Retrieved from <https://www.thomsonreuters.com/en/press-releases/2018/september/thomson-reuters-di-index-ranks-the-2018-top-100-most-diverse-and-inclusive-organizations-globally.html>
- The world Bank. (2019). Statistical Tables.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
-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18.pdf

www.ef.com/epi에서 이전판 EF EPI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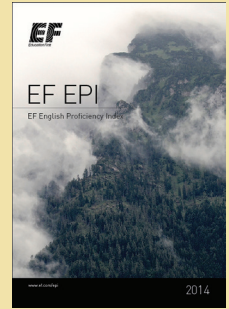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1판 (2011)



EF 영어능력지수
제2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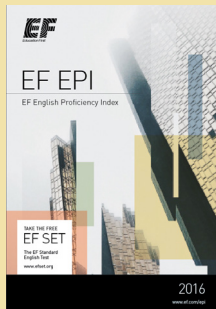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3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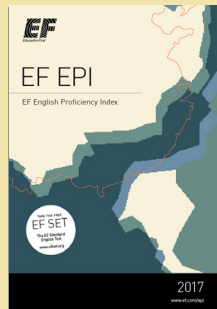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4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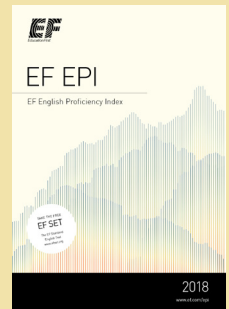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5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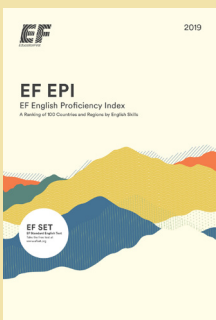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6판 (2016)



EF 영어능력지수
제7판 (2017)



EF 영어능력지수
제8판 (2018)



EF 영어능력지수
제9판 (2019)

